

베트남 관료부패의 실태와 원인:

뇌물수뢰와 공직의 대물림을 중심으로

Corruption in the Vietnam bureaucratic society and its causes
Based on acceptance of bribery and pass-down of government service to
generations

김 현 재(Kim, Hyun Jae)*

ABSTRACT

Corruption still prevails in almost every field of the Vietnamese society, including the governing Communist Party, judicial authorities, finance and tax authorities and public services. Amongst all, the most notorious traditions are the acceptance of bribery between government officials and pass-down of their government positions to their sons. Considering that Vietnam has one sole governing party, which is the Communist Party, it is a very serious problem that the government officials are corrupted, because the corrupted officials may bring disgrace on the Party and the government, which would have an adverse effect on the country's on-going development.

This paper examines the corrupted bureaucracy in Vietnam with a focus on the bribery accepted and government positions (unfairly) passed down to generations. Firstly, this paper reviews the precedent researches on the same subject. And then it analyzes the relevant examples, press releases, and interviews in regards to the two most prevalent types of corruption in Vietnam. Finally, this paper evaluates the causes of corruption and the possibilities of eradicating its corrupted traditions with its after-effects, and then draws a conclusion about implications of the corrupted Vietnamese bureaucracy.

Key words: Vietnam, bureaucracy, corruption, bribe, commission, nepotism

* 영산대학교 아세안비즈니스학과 부교수(hjkingogo@ysu.ac.kr)

I. 서론

베트남은 1986년 도이머이(Dôi Mới) 채택 이후 개혁, 개방으로 인한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뤘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베트남의 공산당과 정부 관료¹⁾들의 부패가 심각한 사회적, 정치적 이슈로 등장해 국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그 결과, 공산당은 1990년 6월 26일에 부패의 배경과 방지 지침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 결정서를 공포했고, 2006년 6월에는 부패방지법(Anti Corruption Law)을 발효해 부패사범을 처벌하는 등 부패척결의 의지를 표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의 당정기관, 사법기관, 권력기관, 금융, 세관, 공기업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관료들의 부패가 여전히 만연해 있다. 특히, 관료들의 뇌물수취와 공직의 대물림 등은 오랜 관행으로서 사회 전반에 깊이 뿌리 내려져있다. 공산당 일당 체제의 사회주의 국가 베트남에서 부패의 주인공이 관료들이라면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관료부패는 괴물적 존재(monstrous existence)로서 당과 정부의 공신력을 와해시킴으로써 국가 발전에 크나큰 역기능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현재 베트남 국민들은 당과 정부의 부패방지법에 대한 실효성을 의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과 정부의 부패척결에 대한 의지조차 불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당과 정부가 최근 발표한 부패 실태 관련 조사 등의 공식 자료는 물론, 베트남 네티즌들이 베트남 관료들의 부패 사례를 고발하는 글을 인터넷, SNS 등에 올리고, 그에 대한 비난성 댓글을 달고 있는 것을 볼 때 감지할 수 있다. 따라서 필자는 베트남 관료부패의 실태를 고찰하기 위해서 오늘날 베트남 관료들의 가장 보편적 부패행위로 알려진²⁾ 뇌물³⁾수취와 공직의 대물림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필자는 관련 문헌자료를 참고함은 물론, 베트남 관료부패 관련 사례, 조사결과, 보도자료 등을 종합, 분석한다. 특히, 필자는 사회주의 국가 베트남의 특성상 관료부패 사례와 그에 대한 현지 여론 등의 수집에 있어서 한계를 극복하고자 직접 베트남을 방문해 현지 거주 한국인과 현지인 대상 심층면접⁴⁾을 수행하고, 그 실증적 사례를 수집, 분석함으로써 연구의 신뢰성을 제고하려고 노력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문헌자료의 종합, 분석과 심층

1) 본 논문에서는 베트남의 공산당과 행정, 입법, 사법 기관 등을 비롯한 각종 공사(公社), 국영기업체 등 일체의 공공기관, 국가 조직체 등에서 일정한 지위를 갖고 공무를 담당하는 모든 구성원과 지도층 등을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관료'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따라서 일부 인용 문구에서는 원문에서 사용한 공무원, 공직자라는 용어를 관료의 협의로 보고 관료라는 용어로 통일해서 사용하기로 한다.

2) 2012년 세계은행과 베트남정부가 공동 수행한 베트남 부패 현황 조사에 따르면 현재 베트남 국민은 관료들의 뇌물수취 행위를 가장 보편적인 베트남의 부패행위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본 논문에서는 봉투, 돈 봉투, 사례비, 뒷돈, 급행료, 비공식 경비, 커미션, 수수료, 기름칠 비용 등 다양한 표현을 '어떤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매수해 사사로운 일에 이용하기 위해 던지시 건네는 부정한 돈이나 물건'이라는 광의(廣義)의 의미의 뇌물로 보고, 뇌물이라는 용어로 통일해 사용하기로 한다.

4) 베트남 현지 심층 면접 대상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익명으로 한다.

면접을 통한 서술적 방법을 취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2장에서 우선, 국내에서 수행된 베트남의 부패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3장에서는 베트남 관료부패의 실태를 뇌물수취와 공직의 대물림 등 대표적 두 가지 관료부패 행위로 구분해 관련 사례, 보도자료, 면담 내용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4장에서는 3장에서 살펴본 관료부패 실태에 관한 원인을 분석, 고찰하고, 마지막 결론에서는 각 장에서 다룬 내용을 종합하는 한편, 베트남 관료부패 척결에 대한 가능성과 그에 대한 후과(後果)를 전망한다.

II. 선행연구 검토

지난 1992년 12월 한·베 양국 간 국교 수립이후 약 23년 간 국내 학자들에 의한 베트남 연구가 다양한 주제를 대상으로 활발히 수행돼 왔다. 그러나 베트남 부패 문제를 주제로 다룬 연구논문은 현재까지 3편에 불과할 정도로 그 연구 성과는 매우 미진한 상태이다. 이는 그간 사회주의 국가 베트남의 특성상 베트남 현지에서 수행된 부패 관련 선행연구, 통계자료, 보도자료 등 문헌자료에 대한 접근 자체가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국가 베트남의 특성상 베트남 부패 문제를 주제로 한, 민간차원의 자유로운 연구, 토론 등 학술적 교류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현재까지 베트남 현지에서 발표된 부패 관련 연구논문이 모두 베트남공산당과 정부의 기관지에 게재, 발표되거나, 당과 정부의 연구과제로서 일부 특정 현지인 학자들에 의해 수행되는 등 당과 정부의 통제 하에 수행돼 온 것을 볼 때 그리고 그간 한국 내에서 발표된 전체 베트남인 유학생들의 석·박사 학위논문 중에서도 베트남 부패문제를 다룬 학위논문이 전무한 것을 볼 때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베트남 부패를 주제로 한 3편의 연구논문은 선행연구로서 그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선행연구 중 국내 최초로 베트남의 부패를 주제로 다룬 연구논문은 김호섭의 ‘베트남 사회주의 개혁(Dõi Mới)과 관료부패’로 1996년 한국정치학회보 30집 4호에 게재됐다. 김호섭은 제2장 ‘베트남의 관료부패의 실태’에서 베트남의 가장 발생 빈도가 높은 부패의 유형을 첫째, ‘권한을 남용한 국가 재산의 횡령’, 둘째, ‘국가관리 체제의 허점을 이용한 사리사욕의 충족’, 셋째, 뇌물수수 등으로 분석, 제시했다. 특히, 뇌물수수 행위를 가장 빈도수가 높은 부패의 유형으로 보고, 베트남의 부패를 당 관료들의 직위나 권한 남용에서 비롯된 관료부패로 판단했다. 그리고 베트남 관료부패의 특수성을 첫째, 부패행위가 주로 ‘직위상의 권한을 가진 기간요원들에 의해 이뤄지고, 둘째, 부패와 밀수가 실질적으로 함께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며, 셋째, 부패가 재정, 은행, 무역, 석유 생산, 건설, 교통, 우편, 통신, 농업 및 식량

산업 등 주요 경제 분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넷째, ‘대규모’의 부패는 사회간접자본 건설을 위한 예산 배분, 건설사업의 입찰, 수출입 면허의 취득, 재정관리, 세금징수 및 관세 부과, 주택 및 토지관리, 사업 검사, 건설 사업을 위한 토지 배분 등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주로 나타나며, 다섯째, 부패가 점차 조직화, 대형화 추세를 보이고, 여섯째, 관료부패에 대한 민간인들의 영향력이 점차 증가세에 있는 것으로 봤다. 제3장 ‘관료부패와 도이머이의 한계’에서는 베트남사회에서 관료부패를 조장해 온 주요인이 ‘관료주의 중앙집중제’, ‘국가보조체제’, ‘이중가격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통적인 사회주의 경제체제에 기인한 것으로 봤다. 그리고 기존 체제를 크게 손상시키지 않는 혹은 개혁 목적에 반(反)하는 기존 체제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개혁 즉, 정치개혁 없는 경제개혁을 의미하는 ‘부분적 개혁(partial reform)’의 속성을 지닌 도이머이(Đổi Mới)가 정치체제의 근본적 속성을 바꾸지 않은 채, 시장경제를 향한 개혁을 추진함으로써 오히려 부패를 증가시키는 부작용을 유발했다고 판단했다.

그 이후 이강우는 2008년에 동남아연구 17권 2호에 ‘도이머이 시대 베트남의 부패와 반부패’라는 제목의 연구논문을 게재했다. 그는 제2장 ‘부패의 실태’에서 도이머이 이후 발생한 부패사건들의 유형과 사례를 주로 관료부패를 중심으로 제시했는데, 하위 관료의 부패 사례로는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행료 징수원들의 뇌물수취를, 고위 관료의 부패 사례로는 사회간접자본 건설 관련 정부의 대형 프로젝트 발주 시 관련 정보나 인·허가권을 가진 고위 관료들과 해당 업체들 간의 정경유착 사례를 제시했다. 그리고 제3장 ‘부패의 원인’에서는 베트남의 부패 발생 원인을 첫째, 식민지의 유산으로서 관료주의, 둘째, 문화적 유산으로서 선물문화, 셋째, 정치, 행정적 유산으로서 우산체제라고 봤다. 제4장 ‘공산당의 대응 정책’에서는 베트남공산당이 추진하고 있는 반부패 정책의 내용을 첫째, 사법적 통제 강화, 둘째, 사회적 책임과 역할 강조, 셋째, 공무원 처우 개선으로 구분해 소개하고, 마지막 결론에서는 정치개혁 없는 경제개혁으로는 현 부패방지 정책이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김현재는 2008년 한국부패학회보 제13권 제2호에 게재한 ‘베트남의 부패, 그 특징과 원인에 대한 고찰’이라는 제목의 연구논문 제2장 ‘부패 개념 정의’에서 도이머이 이후 베트남의 공산당, 정부, 학자 등이 제시한 여러 부패 개념 정의를 제시, 종합한 후, 베트남의 부패 개념 정의는 공직자를 권력자, 부패의 행위자로 보고, 인민을 피해자로 보는 공직자 부패라고 판단하고, 그 유형을 권력형 부패로 봤다. 제3장 ‘부패 실태 및 특징’에서는 도이머이 이후 급증하기 시작한 베트남의 부패 실태와 특징을 첫째, 공직자 부패의 만연, 둘째, 조직적 부패의 만연, 셋째, 뇌물수수의 만연, 넷째, 가족 연루 부패의 만연, 다섯째, 국가 재산 유용 및 횡령의 만연 등으로 구분해 관련 사례들을 제시하고, 그 특징을 분석했다. 제4장 ‘부패의 원인’에서는 베트남 부패의 원인을 첫째, 인치(人治)와 가족주의에 의한 행태적 원인, 둘째, 공직의 대물림과 낮은 보수에 의한 제도적 원인, 셋째, 선물문화와 지하경제 발달에 의한 환경적 요인으로 분석, 제시했다.

전술한 3편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은 첫째, 베트남의 부패를 관료부패로 보고, 그에 연구의 초점을 맞춘 것이고, 둘째, 베트남의 부패 급증과 심화 그리고 그 유형의 다양화 추세를 도이머이가 초래한 부정적 효과로 보고 있는 것이며, 셋째, 베트남 부패의 근본적 원인을 사회주의체제가 갖는 정실주의 인사제도, 내부비판의 억제, 낮은 수준의 공직자 급여, 외부통제의 차단 등과 같은 제도적 한계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한편, 전술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참고문헌의 종합, 분석을 중심으로 수행됐기 때문에 현지의 생생한 여론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다소 한계를 갖는다. 이는 베트남에서 당과 정부가 표현의 자유와 언론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참고문헌의 범위를 당과 정부의 통제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인터넷과 SNS로 확대해, 그곳에서 베트남 네티즌들에 의해 유통되고 있는 관련 글과 그에 대한 댓글 또한 종합,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베트남 관료부패의 실태와 그에 대한 현지 여론을 좀 더 명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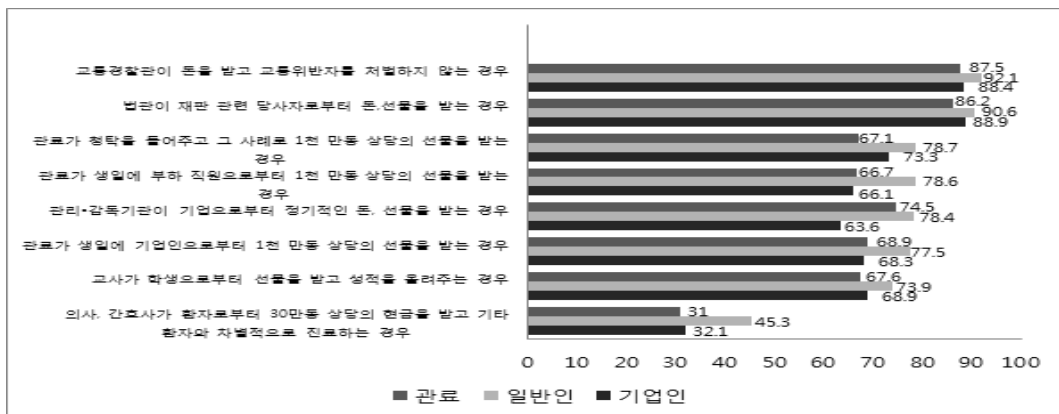
Ⅲ. 베트남의 관료부패 실태

1. 뇌물수취

베트남 관료부패의 대표적 부패행위는 뇌물수취 행위이다. 이는 소위 ‘봉투문화’를 뜻하는 ‘반화풍비(văn hóa phong bì)’로 불리며 현금, 선물, 주식, 시세 차익이 큰 부동산 등을 수취하거나 해외여행, 성상납 등을 제공 받는 등의 다양한 형태로 암세포처럼 중앙과 지방정부의 공공기관, 공기업, 학교, 병원 심지어 사법기관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지역과 장소에서 관행으로 행해지고 있다. 이는 지난 30 여 년간 수행된 조사 결과를 볼 때 알 수 있다. 우선 1985년부터 1990년까지 베트남 경찰당국이 적발한 공금횡령, 탈세, 밀수, 사기 등 경제범죄의 약 70%에서 뇌물수취 행위가 발생했는데, 그 중 관료가 연루된 사례 65.4% 중 82%에서 관료의 뇌물수취가 있었고, 그 뇌물수취 관료들 중 86.6%가 먼저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Nguyễn Xuân Yêm, 2007: 72) 1990년대 초반에는 적발된 관료들의 뇌물수취 행위가 이미 “조사의 한계를 넘어설 정도로” 난무하고 있는 실정이었다(김호섭, 1996: 386), 공산당의 2001년 내부 부패조사에서도 전체 당원의 40% 이상인 69,000여명이 지난 5년 간 부패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는데, 그 중 뇌물수취 행위가 가장 보편적인 것으로 드러났다.(Võ Xuân Hán, 2006: 14-15) 특히, 뇌물을 수취한 관료들의 직급 중 국장급, 부서장급 이상의 간부가 각각 13.0%, 27.9%로 전체의 40.9%, 그 이하 직급이 59.1%로 나타남으로써 베트남 관료들의 뇌물수취 행위가 상·하위 직급 전체에 만연해 있음이 드러났다.

결국, 2012년 세계은행과 베트남정부가 공동 수행한 ‘베트남 국민이 인식하고 있는 부패 행위’에 대한 조사⁵⁾결과인 <그림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오늘날 베트남 국민은 관료들의 뇌물수취 행위를 가장 보편적인 부패행위로 인식하기에 이르렀다.

<그림1> 베트남 국민이 인식하고 있는 부패행위(단위: %)



[출처: Ngân hàng thế giới, 2012: 30]

특히, 교통경찰은 이미 2005년에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발표한 베트남 내 최대 부패 10개 기관⁶⁾ 중 3위에 선정된 것에 이어서 2012년에도 최대 부패 10개 기관⁷⁾ 중 1위에 선정됐는데, 오늘날 베트남 국민들 역시 교통경찰을 가장 부패한 관료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림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관료, 일반인, 기업인 각각 87.5%, 92.1%, 88.4%가 ‘교통경찰관이 돈을 받고 교통위반자를 처벌하지 않는 행위’를 부패행위로 인식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는데, 최근 교통경찰관을 사칭해 돈을 뜯어내는 신종범죄⁸⁾까지 발생하고

5) 세계은행과 베트남정부가 2012년에 하노이(Hà Nội), 호찌민시(TP.Hồ Chí Minh), 선라(Sơn La), 하이즈엉(Hải Dương), 동탑(Đồng Tháp), 응에안(Nghệ An), 트어티엔후에(Thừa Thiên Huế), 다낭(Đà Nẵng), 하이퐁(Hải Phòng), 켄터(Cần Thơ) 등 베트남 전체 인구 중 약 30%가 거주하고 있으며, 베트남 전국 GDP의 약 65%를 차지하고 있는 총 10개 성(省), 시(市) 지역 거주 주민 2,601명, 기업인 1,058명, 관료 1,801명(해당 지역 인민위원회 소속 간부 등을 포함한 지방정부 근무자: 1,710명, 교통운송부, 건설부, 산업무역부, 재무부, 자원환경부 등 중앙 5개 부처 소속 간부 등을 포함한 중앙정부 근무자 91명)등 무작위로 추출한 총 5,460명을 표본으로 실시된 부정부패 조사

6) 1.토지 및 주택관리기관, 2.세관, 3.교통경찰관, 4.세무기관, 5.건설관리기관, 6.건설허가기관, 7.의료기관, 8.투자기획부서, 9.도로교통 관리기관, 10.경제경찰관

7) 1.교통경찰관, 2.토지 및 주택관리기관, 3.세관, 4.건설관리기관, 5.도로교통 관리기관, 6.광산자원관리기관, 7.의료기관, 8.경제경찰관, 9.세무기관, 10.투자기획부서(Ngân hàng thế giới, 2012: 36)

8) 북부 하이퐁시에서 일반인이 위조한 교통경찰관 신분증으로 교통경찰관을 사칭해 운전자들로부터 돈을 뜯어낸 사건(http://cand.com.vn/Phap-luat/Phat-hien-xu-ly-cac-doi-tuong-gia-danh-Canh-sat-giao-thong-3558_71/)이 있었고, 중부 광응아이(Quảng Ngãi)성(<http://anninhthudo.vn/phap-luat/bat-ke-chuyen-gia-danh-canhsat-giao-thong-chan-nguoi-di-duong/607507.antd>)과 남부 빈즈엉(Bình Dương)성(<http://hiepsibinhduong.com/Pages/NewsDetail.aspx?id=318&type=45>) 그리고 메콩

있는 것을 볼 때, 오늘날 교통경찰의 뇌물수취의 만연 정도를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당국은 교통경찰관의 뇌물수취 방지를 위해 ‘근무 중 현금 10만동 이상 소지 금지’⁹⁾, ‘배 나온 교통경찰관 6개월 정직’¹⁰⁾, ‘배 나온 교통경찰관의 외근 금지’를 비롯해 교통경찰관의 함정단속을 방지하기 위해 ‘외근 중 가로수 등의 은폐물에 접근 금지’, ‘외근 중 선글라스 착용 금지’¹¹⁾등의 다양한 규정들을 마련, 시행하는 한편, 뇌물을 거부하고 뇌물공여 사범을 적발한 교통경찰관들의 사례¹²⁾를 청렴한 행위로 높이 평가하면서 마스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법관의 뇌물수취도 매우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1>의 ‘법관이 재판 관련 당사자로부터 돈, 선물을 받는 행위’를 부패행위로 인식하고 있는 응답자가 무려 86.2~90.6%인 것을 볼 때, 오늘날 법관의 뇌물수취도 대단히 만연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외에도 관료가 청탁을 들어주고 그 사례로 1천 만동¹³⁾상당의 선물을 받는 행위, 관료가 자신의 생일에 부하 직원으로부터 1천 만동 이상의 선물을 받는 행위, 관리·감독기관이 기업으로부터 정기적인 돈, 선물을 받는 행위, 관료가 자신의 생일에 기업인으로부터 1천 만동 상당의 선물을 받는 행위, 교사¹⁴⁾가 학생으로부터 선물을 받고 성적을 올려주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델타 지역 미토(My Tho)시(<http://nld.com.vn/phap-luat/gia-dai-uy-can-hat-giao-thong-de-lua-dao-20140713213012663.htm>)에서 일반인이 교통경찰관 복장을 하고 운전자들로부터 돈을 뜯어낸 사건. 언론사 기자, 경찰 감찰관 등을 사칭해 교통경찰관들을 협박하고 돈을 뜯어낸 간화(Khánh Hòa)성(<http://vnexpress.net/tin-tuc/phap-luat/gia-nha-bao-ghi-hinh-tong-tien-csgt-100-trieu-dong-3229684.html>), 호찌민시(<http://phapluattp.vn/an-ninh-trat-tu/hai-sinh-vien-gia-danh-tong-tien-csgt-531316.html>)에서 발생한 사건. (<http://conganphuyen.vn/tin-da-phuong/2624-gi-da-nh-cong-an-d-kim-tra-cn-hat-giao-thong.html>)

- 9) 2011년 12월에 호찌민시 경찰국은 소속 교통경찰관들에게 근무 중 10만동(미화 약 5달러) 이상 현금의 소지를 금지하고, 상관으로 하여금 수시로 근무 중인 교통경찰관이 소지하고 있는 현금을 확인, 감독하도록 조치했다. (<http://www.tuoiitre.com.vn/Tianyon/Index.aspx?ArticleID=29528&ChannelID=3>)
- 10) 동나이(Đồng Nai)성(省) 경찰국은 소속 교통경찰관들에게 교통경찰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 몸무게를 줄이고 뱃살을 빼도록 지시했다. 이는 베트남에서는 아직 많은 사람들이 배가 나오고 살이 찐 사람을 보면 돈이 많은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교통경찰이 서민들의 돈을 갈취해 배가 나왔다는 이미지를 없애기 위한 조치로서 우선, 배가 나오고 비만인 교통경찰관들을 선별해 6개월 간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 기간 동안 살을 빼서 복귀하도록 조치했다. (<http://vnexpress.net/tin-tuc/phap-luat/canh-sat-bung-phe-khong-duoc-tiep-dan-2080416.html>)
- 11) 2013년 3월에 베트남 하노이 경찰국은 2013년 하노이 경찰의 이미지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서 소속 교통경찰관들에게 뱃살을 빼도록 지시하고 배가 나온 비만 교통경찰관들의 외근을 금지시켰다. 그 외에도 근무 중 선글라스 착용 금지, 흡연 금지, 시민들에게 거친 말 사용 금지 등의 행동지침을 발표했다. (<http://www.tienphong.vn/xa-hoi/csgt-bung-phe-tho-lo-khong-duoc-ra-duong-616395.tpo>)
- 12) 호찌민시 교통경찰 브영 반 브영(Vương Văn Vương) 대위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총 132회에 걸쳐 뇌물공여 운전자를 적발하고, 총 2천 5백만 동(미화 약 1,250 달러 상당)의 뇌물을 거부해 베트남 경찰청과 호찌민시 경찰청으로부터 각각 1회와 12회 표창을 받았다. 호찌민시 교통경찰 응우옌 홍띠엔(Nguyễn Hồng Tiên) 역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총 44회에 걸쳐 총 1천 3백 동(미화 약 650 달러 상당)의 뇌물을 거부해 호찌민시 경찰청으로부터 총 11회 표창을 받았다.
- 13) 미화 약 500달러 상당

63.6-78.7%가 부패행위로 인식하고 있으며, 의사, 간호사가 환자로부터 30만동 상당의 현금을 받고 기타 환자와 차별적으로 진료하는 경우도 응답자의 31-45.3%가 부패행위로 인식하고 있음을 볼 때, 오늘날 베트남 관료들의 뇌물수취는 행정, 사법, 교육, 의료¹⁵⁾ 등 각 분야에서 만연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공공서비스 이용 또는 공공기관 방문 시 반드시 뇌물을 줘야하는 경우’에 대한 조사 결과(Ngân hàng thế giới, 2012: 50)에서는 1위 교통단속 적발 시, 2위 학교 방문 시, 3위 공직 취업 시, 4위 공립병원 이용 시, 5위 건설허가서 발급 시, 6위 전기 설치·수리 요청 시, 7위 토지사용권 증명서 취득 시, 8위 상수도 설치·수리 요청 시, 9위 영업허가서 발급 시, 10위 국영은행 대출 신청 시, 11위 주거지 등록 시, 12위 출생신고 시, 13위 세금 신고·납부 시 등의 순(順)으로 나타났는데, 여기에서도 <그림1>에 포함된 교통경찰, 교사, 의료인들이 각각 1, 2, 4위로 상위권을 차지했다. 이는 오늘날 베트남에서 이들 세 부류의 관료들이 뇌물수취를 가장 빈번히 행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공직 취업 시’ 반드시 뇌물을 줘야한다는 인식이 3위를 차지한 것을 볼 때, 매관매직이 베트남 사회에서 관행화 된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도 각종 허가서, 증명서 발급, 주거지 등록, 출생신고 등의 일반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때, 전기, 상수도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국영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 세금 신고·납부할 때에도 반드시 뇌물을 줘야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오늘날 베트남 사회 전반에서 관료의 뇌물수취가 관행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같은 관행은 한국에 온 베트남 근로자들과 결혼이주여성들의 관련 사례에서도 드러난다. 2005년 한국 국가청렴위원회가 한국에 입국한 고용허가제 베트남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송출비리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베트남 근로자들의 1/3 이상이 베트남 현지의 근로자 해외 송출 업무 담당 관료들에게 미화 약 2,400-4,400달러의 뇌물을 주고 입국한 것으로 밝혀졌다.¹⁶⁾ 2013년 한국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베트남 근로자들의 입국 비용이 여타 국가 출신 근로자들의 입국 비용보다 약 10배 많은 미화 약 10,000 달러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베트남 현지의 해당 업무 관료들의 뇌물수취가 주원인인 것으로 밝혀졌다.¹⁷⁾ 한편, 베트남 현지 국제결혼중개업체의 한 관계자는 “국제결혼 허가권을 갖는 지방 관료들에게 뒷돈을 찢어주는 게 관행처럼 됐다”고 말한다.¹⁸⁾ 이는 베트남인이 외국인과의 결혼하려면 거주지에서 결혼 담당 관료의 인터뷰를 통과¹⁹⁾해야 하는데, 이 과정

14) 베트남 현지 초·중·고 및 대학 등 교육기관의 대부분은 국공립이므로 <그림1>의 교사는 교육 분야 관료로 볼 수 있다.

15) 베트남 현지 병원은 극소수 외국계 종합병원 및 영세규모의 개인병원 이외 모두 국공립 병원이므로 <그림1>의 의사, 간호사는 의료 분야 관료라 할 수 있다.

16)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112&aid=00000198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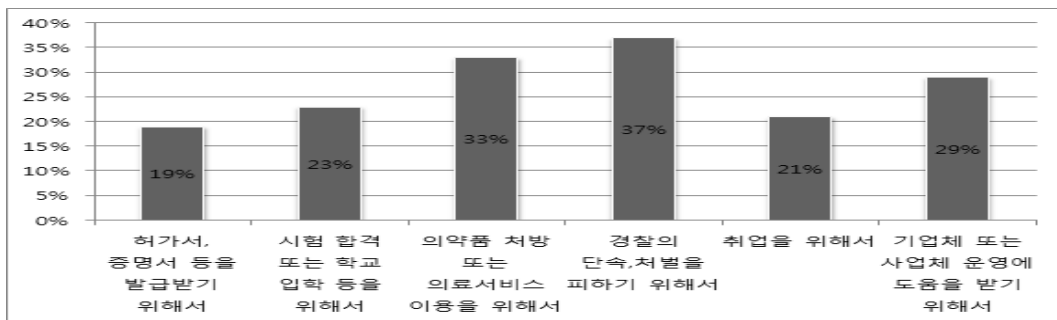
17)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6912250>

18)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88665.html

19) 베트남인이 외국인과의 결혼 사기에 휘말리는 것을 막기 위해 시행하는 인터뷰로써 외국인 배우자의 가족사항 등 관련 질문에 제대로 답을 하지 못하면 결혼 불허 결정이 내려진다.

에서 해당 관료들의 뇌물수뢰가 만연해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결국, 베트남 법무부는 2016년 1월부터 베트남에서 외국인과 결혼하려는 자국민에 대한 사전 인터뷰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²⁰⁾

〈그림2〉 지난 12개월 동안 본인이 직접 행했던 뇌물 제공 행위의 사유



[출처: <http://vanhoagiaoduc.vn/bao-van-hoa-giao-duc-tham-nhung-o-viet-nam-nhung-ban-tre-nghi-gi-12462.html>]

〈그림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베트남 조국전선이 2010년 8월-12월 기간 중 무작위 추출한 전국 11개 시(市)와 성(省)²¹⁾ 거주 15세-30세 연령 남녀 1,022명을 대상으로 수행한 ‘베트남 청년의 청렴인식도 조사’에서 ‘지난 12개월 동안 본인이 직접 행했던 뇌물 제공 행위의 사유’를 묻는 질문에 37%가 ‘경찰의 단속·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답했고, ‘의약품 처방 또는 의료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 ‘기업체 또는 사업체 운영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시험 합격 또는 학교 입학 등을 위해서’, ‘취업을 위해서’, ‘허가서, 증명서 등을 발급받기 위해서’ 순으로 각각 33%, 29%, 23%, 21%, 19%가 답했다. ‘뇌물을 제공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 대한 질문에서도 청년들은 ‘좋은 학교에 입학 또는 좋은 직장에 입사하고자 하는 경우’, ‘좋은 보직을 맡고자 할 경우’, ‘허가서, 증명서 등 서류를 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 ‘시험에 합격하고자 하는 경우’ 순으로 각각 38%, 33%, 18%, 16%가 뇌물을 제공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특히, 기업인은 관료들의 뇌물수뢰 주요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이는 2012년 베트남상공회의소가 베트남 국내 하노이, 하이퐁, 호찌민시 등 전국 6개 지역 소재 270개 업체와 기업인 협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 알 수 있다. 이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무려 80%가량이 관료의 뇌물수뢰 행위로 인해 영업 활동이 차질을 빚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약

20)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7/20/0200000000AKR20150720034400084.HTML?input=1195m>

21) 호찌민(Hồ Chí Minh)시, 디엔비엔(Điện Biên)성, 하이즈엉(Hải Dương)성, 남딘(Nam Định)성, 응에안(Nghệ An)성, 쩡응아이(Quảng Ngãi)성, 자라이(Gia Lai)성, 림동(Lâm Đồng)성, 빈즈엉(Bình Dương)성, 롱안(Long An)성, 안장(Anh Giang)성

50%는 사업 상 이익을 목적으로 관료들에게 현금과 고가 선물 등을 제공했다고 답했다.²²⁾

최근 2014년 베트남상공회의소가 베트남 내 8,368개 자국 기업 및 1,491개 외국인투자기업 등 총 9,859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66%가 원활한 사업을 위해 통상 관료들에게 뇌물을 쥐어한다고 답했고,²³⁾ 58%는 뇌물이 사업에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또한 기업들이 행정적 어려움에 봉착할 경우, 그 대응에 관한 조사에서도 59.2%가 “뇌물을 제공한다.”고 답했다.(Ngân hàng thế giới, 2012: 40) 외국인투자기업인도 관료들의 뇌물수취 대상이 되고 있는데, 2010년 미국의 국제개발처(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가 베트남 현지 진출 47개국, 1,155개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조사, 작성한 ‘대(對)베트남 외국인투자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 기업의 70%가 수출입 통관 시 ‘기름칠 비용(lubricating fees)’이라는 뜻의 ‘피 보이 쩐(phí bôi trơn)’을 관료들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답했고, 이어서 40%는 공공발주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20%는 기업 등록 시에 관료들에게 피 보이 쩐을 제공해야 한다고 답했다.²⁴⁾ 이와 관련해 세계은행(World Bank)은 베트남에서 물류업체들이 신속한 통관을 위해 세관 관료들에게 급행료를 지불하고, 이후 고객들에게 5-50%의 관련 추가 비용을 청구하고 있다며, 이런 급행료 규모가 2012년에 미화 약 2억 6,100만 달러에서 2020년에는 미화 약 4억 9,300만 달러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다.²⁵⁾ 2014년 2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발표한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들의 현지 경영상 애로사항 취합 자료²⁶⁾에서도 한국 기업들은 주로 통관, 세무, 환경, 노동허가 등의 업무 수행 시 담당 관료들의 뇌물 요구가 심각하다고 밝혔다.²⁷⁾

특히,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베트남 정부의 공공 발주 프로젝트는 관료들이 기업인들로부터 막대한 수수료를 챙길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 대표적 사례로 2008년에 일본의 공적개발원조(ODA)자금으로 이뤄지는 동서(東西)고속도로 공사 프로젝트에서 베트남 동서고속도로사업단 단장 ‘훙 응옥 시(Huỳnh Ngọc Sĩ)’와 부단장 ‘레파(Lê Quả)’ 등은 일본의 컨설팅업체 ‘퍼시픽 컨설턴츠 인터내셔널(Pacific Consultants International)’로부터 미화 240만 달러의 수수료를 받고 공사 시공권을 낙찰 받게 했다. 2014년에는 ‘응오 안 따오(Ngô Anh Tào)’ 베트남철도청 차장, ‘쩐 꾸억 동(Trần Quốc Đông)’ 철도사업관리위원장 등이

2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55_76371

23)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4/18/0200000000AKR20150418021200084.HTML?input=1195m>

24)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1/03/23/0200000000AKR20110323136100084.HTML?did=1179m>

25) <http://weeklytrade.co.kr/news/view.html?section=1&category=136&item=&no=6586>

26) KOTRA하노이 무역관, 駐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이 베트남 기획투자부 산하 투자청 등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2012년부터 매분기마다 베트남 내 각 지역별로 진출한 한국기업과 기업 경영환경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취합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함.

27) http://www.iuc.or.kr/board/?act=bbs&subAct=view&bid=a0301a&page=1&category=3&order_index=no&order_type=desc&list_style=list&seq=3129

역시, 일본의 ODA자금으로 이뤄지는 프로젝트에서 일본 컨설팅업체 일본교통기술(Japan Transportation Consultants)의 수주를 돕는 대가로 미화 약 78만 달러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²⁸⁾ 2015년에는 세계은행의 ODA자금 미화 총 5억 달러로 이뤄지는 베트남 ‘농촌 교통 3’과 ‘다낭(Đà Nẵng)인프라 건설’ 등 2건의 프로젝트를 관리, 감독하는 관료들이 미국 기업 ‘루이스버저 그룹(Louis Berger Group)’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실이 발각됐다.²⁹⁾

한편, 관료의 관료로부터 뇌물수취 행위도 관료사회 내부에서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교통부 장관 다오 딘 빈(Đào Đình Bình)과 차관 응웬 비엠티엔(Nguyễn Việt Tiến) 등은 교통부에서 발주하는 도로 건설 프로젝트를 교통부 산하 PMU18³⁰⁾의 부이 띠엔 중(Bùi Tiến Dũng) 사장이 수주 받도록 하고,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하청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수취토록 한 후, 그에 대한 대가로 고급 차량, 성상납, 향응 등을 제공받은 사실이 드러났다.³¹⁾ 농업농촌개발부의 응웬 쩡 하(Nguyễn Quang Hà), 응웬 티엔 루언(Nguyễn Thiện Luân) 등 2명의 차관과 일부 국장급 고위 관료들도 산하 투자판매공사 사장, 농업농촌개발은행 은행장 등과 담합해 투자판매공사에 허위 프로젝트를 발주하고, 농업농촌개발은행으로부터 약 1천 억 동 of 은행 대출을 받게 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수취한 사실이 적발됐다.³²⁾ 베트남 북부 랑썬(Lang Son)성의 베트남·중국 국경 검문소에서는 검문소 소장의 주도 하에 랑썬성 세관장을 비롯한 세관원 등 총 29명이 결탁해 일부 기업의 밀수를 묵인해 주고, 그 대가로 총 10억 동 이상의 뇌물을 함께 수취했는데, 그 과정에서 검문소와 세관에서 수취한 뇌물의 일부를 해당 소재지 관할 지방정부의 최고 권력자인 랑썬성 인민위원회 위원장 등에게 상납한 사실이 밝혀졌다. 전술한 바와 같이 관료의 관료로부터 뇌물수취 행위는 중앙정부 부처와 해당 부처 산하 국영기업의 관료들 간 또는 상급기관과 하급기관 관료들 간 담합에 의해 조직적, 집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뇌물수취 행위는 조직이나 집단이 뇌물수취 행위를 유인 또는 견제하거나 허락함으로써 뇌물수취 행위가 일반화되고 대형화돼 관료제도와 국가행정 질서를 근본적으로 뒤흔들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심각한 부패 형태라 할 수 있으며, 베트남 관료사회에 뇌물수취 행위가 구조화, 체제내화 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28) <http://nld.com.vn/thoi-su-trong-nuoc/nghi-an-nhan-hoi-lo-von-oda-tu-jtc-bo-cong-an-vao-cuoc-20140324230618925.htm>

29) <http://kinhdoanh.vnexpress.net/tin-tuc/doanh-nghiep/wb-cam-cua-cong-ty-my-vi-lien-quan-den-tham-nhung-tai-vn-3176983.html>

30) 베트남 교통부 산하 최대 교통건설공사의 최대 자회사인 Project Management Unit 18의 약자이다. PMU18은 주로 세계은행, 일본, 유럽 등으로부터 제공된 외국의 ODA자금과 일부 정부 자금으로 전국 40개 성(省)내 도로, 교량 등의 시공, 관리 등의 업무를 관장해왔다.

31) <http://soha.vn/xa-hoi/loi-khai-duong-chi-dung-va-vet-xe-pmu-18-2014-0113010404288.htm>

32) <http://vnexpress.net/tin-tuc/phap-luat/noi-dau-ly-hon-cua-la-thi-kim-oanh-2927242.html>

2. 공직의 대물림

전통적으로 베트남에서는 관료가 권력자로서 선망의 대상이다. 베트남은 고대 중국의 약 1천년 그리고 근대 프랑스, 일본의 약 100년 간 식민 지배의 역사를 거치면서 ‘관료는 권력자’라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뿌리 내리게 됐다. 특히, 11세기- 18세기까지 관료 선발을 목적으로 시행된 과거시험에 합격해 관료가 되는 것은 부, 권력, 명예를 한꺼번에 거머쥐는 가문의 영광으로 여겨졌고, 세인들로부터 선망의 대상이 됐다. 또한 이는 관료들 스스로가 국사(國事)를 집행하는 권력자로서 특권 의식을 갖게 했다. 실례로 1700년대 북부 베트남에서 상인, 행상, 푸줏간 주인에게 관료를 선발하는 과거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매매했을 때에 과거시험장에 들어가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서로 싸움을 벌일 정도였다(알렉산더 우드사이드, 2012: 59)는 기록은 당시 관료의 사회적 위상과 관료에 대한 베트남인들의 선망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보여준다. 관료는 오늘날에도 베트남에서 최고의 직업으로 통하는데, 명목상 급여 수준은 민간기업보다 낮지만 주택, 교육 등 후생복리와 근무 강도 등이 여타 업종보다 더 낮고, 정년도 보장돼 있는데다가, 인·허가권을 가진 부서에 근무하는 관료는 쉽게 뒷돈을 챙길 수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공산당 중앙위원회, 국방부,公安부, 재무부, 무역부, 교통부, 투자기획부, 중앙은행은 관료들 사이에서도 거액의 뒷돈을 챙길 수 있는 인기 부처로 손꼽힌다.

따라서 뇌물을 주고서라도 관료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다. 유엔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과 베트남조국전선과학연구 및 간부배양센터(Centre for Research and Training of the Viet Nam Fatherland Front)가 전국 63개 성시에 거주하고 있는 13,892명을 대상으로 조사, 발표한 ‘2013년 통치 행정·관리효과지수(The Vietnam Provincial Governance and Public Administration Performance Index 2013)’에서는 조사대상자의 약 50%가 ‘공공기관에 취업하기 위해서 뇌물을 줄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³³⁾ 또한 전국 414개 싸(xã, 社), 프엉(phường, 坊), 티쩐(thị trấn/ 市鎮)³⁴⁾에 거주하고 있는 61,000명을 대상으로 ‘2014년 통치 행정·관리 효과 지수’에서도 약 50%가 ‘거주 지역의 공공기관에 취업하기 위해서 뇌물을 줄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³⁵⁾ 이를 볼 때, 오늘날 베트남에는 대도시에서 지방 촌락에 이르기까지 공공기관에 취업하기 위해서 즉, 관료가 되기 위해서 뇌물을 주는 것이 관행화 돼 있음을 알 수 있다. 실례로 국립 박닌(Bác Ninh)종합 병원에서는 의사, 간호사 등으로 채용하는 대가로 병원장을 비롯해 인사과장, 간호사, 경비

33) <http://www.thanhvien.com.vn/chinh-tri-xa-hoi/12-benh-nhan-phai-boi-duong-them-cho-can-bo-y-te-huyen-551463.html>

34) 싸, 프엉, 티쩐은 베트남의 행정 구역 3개 급 중 띠nh(省)급, 후엔(Huyện, 縣)급 다음의 최하위 싸(xã, 社)급의 지방 행정구역으로써 한국의 면, 동, 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35) <http://www.thanhvien.com.vn/chinh-tri-xa-hoi/tham-nhung-lot-tay-van-pho-bien-551815.html>

원 등 6명이 조직적으로 의뢰인으로부터 1인당 현금 1천 5백만-2천만 동을 수뢰한 사건이 있었다. 또한 공기업에도 뇌물을 주고 취업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국영 항공사 베트남항공(Viet Nam Airline)에서는 직원 2명이 베트남항공 승무원으로 채용시켜 주는 대가로 일반인들로부터 1인당 미화 1만 5천-1만 8천 달러를 수뢰한 후, 그 금액 중 일부를 사내 인사 업무 담당자들에게 전달해 승무원 자격 미달의 일반인들을 채용토록 하는 등, 인사 채용 관련 뇌물수뢰 브로커 역할을 해 온 사실이 적발된 사건도 있었다.(김현재, 2008: 22)

그러나 전·현직 고위 관료들의 친인척은 뇌물 없이 공기업을 비롯한 공공기관 등에 쉽게 발을 들여 놓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 사례로 2010년 7월 경질된 베트남 국영 조선사 비나신(Vina Shin)의 전 회장 팜 타인 빈(Phạm Thanh Bình)은 회장 재직 시 그의 동생, 처제, 아들을 비나신에 입사시키고, 단기간에 비나신 사장, 비나신 러시아 지사장, 자회사 부회장 등의 고위직에 각각 고속 승진시키는 등의 인사비리를 저질렀다. 2012년 4월에는 베트남 최고 권력 기구 공산당 정치국의 위원 겸 베트남 공산당 중앙조직위원장 또 휘 르어(Tô Huy Rúa)가 대학을 갓 졸업한 24세 딸 또 린 호영(Tô Linh Hương)을 베트남 최대 건설사이자 공기업인 비나코넥스(VINA CONEX)의 회장에 임명했다가 거센 비난 여론³⁶⁾이 일자 취임 3개월 만에 퇴임시킨 사건도 있었다.³⁷⁾ 심지어 반(反)부패기관의 수장(首長)이라 할 수 있는 르엉 까오 카이(Lương Cao Khải) 총리실 부정부패조사단 단장 겸 감사원 부원장조차도 국영 석유회사 페트로 베트남(Petro Vietnam)에 자신의 친인척 여러 명을 부당하게 취업시킨 사실이 드러났다.³⁸⁾

전술한 바와 같이 전·현직 고위 관료들의 친인척이 공기업,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 국립대학, 군대 등에 고위 관료로 자리 잡은 사례들은 무수히 많다. 우선, 일부 전직 고위관료들의 관련 사례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팜반동(Phạm Văn Đồng) 전 총리의 아들 팜 선 즈영(Phạm Sơn Dương) 인민군 소장(小將), 팜흥(Phạm Hùng) 전 총리의 두 아들 팜 호앙 하(Phạm Hoàng Hà) 빈즈영(Bình Dương)성(省) 부성장(副省長)과 팜 호앙 흥(Phạm Hoàng Hưng) 호찌민시 세관 수출입상품분류분석센터 부센터장 그리고 그의 딸 팜 마이홍(Phạm Mai Hồng) 베트남 경찰청 정책국 대좌, 레주언(Lê Duẩn) 전 당서기장의 아들 레 끼엔 쯡(Lê Kiên Trung) 호찌민시 세관장, 레득토(Lê Đức Thọ) 전 정치국원의 아들 레남탕(Lê Nam Thắng) 정보통신부 차관, 보 응웬 지압(Võ Nguyên Giáp) 전 부총리의 아들 보홍남(Võ Hồng Nam) 정보통신공사 사장과 판딘진(Phan Đình Dĩnh) 전 부총리의 아들 판딘득(Phan Đình Đức) 베트남석유개발공사 이사와 그의 딸 판티호아(Phan Thị Hòa)

36) 회사 홈페이지에 게재된 분홍색 미니스커트와 분홍색 하이힐 차림으로 수행원들과 함께 건설 공사 현장을 순시하는 앳된 모습의 또린호영의 사진들이 네티즌들에 의해 인터넷, SNS 등을 통해 삼시간에 널리 알려지면서 여론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

37) http://www.bbc.com/vietnamese/vietnam/2012/04/120420_politburo_daughter_ceo.shtml

38) <http://vietbao.vn/An-ninh-Phap-luat/Luong-Cao-Khai-linh-an-21-nam-tu-giam/70103710/218/>

베트남석유개발공사 감찰위원장, 하취텡(Hà Huy Tập) 전 공산당 서기장의 외손녀 응웬 티 김 띠엔(Nguyễn Thị Kim Tiến) 보건부 장관, 레 득 아인(Lê Đức Anh) 전 국가주석의 아들 레만하(Lê Mạnh Hà) 호찌민시 인민위원회 부위원장과 며느리 응웬 티 조안(Nguyễn Thị Doan) 국가 부주석, 보 반 끼엣(Võ Văn Kiệt) 전 총리의 아들 판 타인 남(Phan Thanh Nam) 수출공사 회장과 그의 조카 보 반 트영(Võ Văn Thương) 호찌민시 공산당 부서기장, 판 반 카이(Phan Văn Khải) 전 총리의 아들 팜반띠(Phan Văn Ty) 국영 황자(Hoàng gia)호텔 사장, 응웬 반 안(Nguyễn Văn An) 전 국회의장의 아들 응웬 시 히엩(Nguyễn Sỹ Hiệp) 총리 비서실장, 농 득 마인(Nông Đức Mạnh) 전 당서기장의 아들 농 꾸옥 뚜언(Nông Quốc Tuấn) 베트남 민족위원회 부위원장, 쩌 득 르영(Trần Đức Lương) 전 국가주석의 아들 쩌 뚜언 아인(Trần Tuấn Anh) 산업무역부 차관, 응웬 반 안(Nguyễn Văn An) 전 국회위원의 사위 황쑹하이(Hoàng Trung Hải) 부총리와 그의 아내 판티호영(Phan Thị Hương) 정보통신부 국장, 팜 반 쯔영(Phạm Văn Cường) 전 외교부 장관의 아들 팜빈민(Phạm Bình Minh) 현 부총리, 응웬 마인 겸(Nguyễn Mạnh Cẩm) 전 부총리의 아들 응웬 겸 뚜(Nguyễn Cẩm Tú) 산업무역부 차관, 응웬반찌(Nguyễn Văn Chi) 전 공산당 정치국원의 아들 응웬 쑤언 아인(Nguyễn Xuân Anh) 다낭(Đà Nẵng)시 공산당 부서기장, 쩌럼(Trần Lâm) 전 베트남 국영방송공사 사장의 아들 쩌빈민(Trần Bình Minh) 현 베트남 국영방송공사 사장, 부 반 히엔(Vũ Văn Hiền) 전 국영 베트남 라디오방송국 사장의 아들 부 민 뚜언(Vũ Minh Tuấn) 현 베트남 국영라디오방송국 부사장 등이 있다.

그 외 일부 현직 고위관료들의 사례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응웬 떤 중(Nguyen Tấn Dũng) 현 정치국원 겸 총리의 두 아들 응웬 타인 응이(Nguyen Thanh Nghi) 건설부 차관과 응웬 민 찌엣(Nguyễn Minh Triết) 빈딘(Bình Định)성 인민위원회 중앙집행위원, 응웬 신 흥(Nguyễn Sinh Hùng) 현 정치국원 겸 국회의장의 아들 응웬 신 넷 떤(Nguyễn Sinh Nhật Tân) 산업무역부 법제국 국장과 그의 조카 쩌 썬 타인(Trần Sỹ Thanh) 박장(Bắc Giang)성 당서기, 또 휘 르어(Tô Huy Rúa) 현 정치국원 위원 겸 공산당 중앙조직위원장의 큰 아들 토뚜하(Tô Từ Hà) 공산당 중앙집행위원 겸 국영 베트남항공 공산당 청년단 지부장, 둘째 아들 토취부(Tô Huy Vũ) 중앙은행 통계예보국장, 풍 쑹 타인(Phùng Quang Thanh) 현 정치국원 겸 국방부 장관의 아들 풍 쑹 하이(Phùng Quang Hải) 국방부 산하 국영 319건설회사 사장, 쩌 다이 꾸앙(Trần Đại Quang) 현 정치국원 겸公安부 장관의 동생 쩌 꾸옥 토(Trần Quốc Tồ) 현 타이 응웬(Thái Nguyên)성 공산당 부서기장, 레 타인 하이(Lê Thanh Hải) 현 정치국원 겸 호찌민시 공산당 서기장의 아내 쩌영 티 히엔(Trương Thị Hiền) 호찌민시 간부학교 교장, 그의 동생 ‘레떤흥(Lê Tấn Hùng)’ 호찌민시 청년돌격대 대장, 그의 아들 레 쩌영 하이 히에우(Lê Trương Hải Hiếu) 호찌민시 12군(郡) 인민위원회 위원장 등이 있다.

전술한 전·현직 고위 관료들의 친인척은 낙하산 인사로 주요 보직에 관료로 임명된 후,

고속 승진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대표적 사례로 농 득 마인 전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의 아들 농 득 뚜언(Nông Đức Tuấn)은 그의 아버지가 국회의장으로 재임하던 당시 2000년 12월에 베트남 청년회 중앙회 상임부회장에 임명돼 관료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후 아버지가 공산당 서기장으로 재임하던 기간 동안 고속 승진을 거듭한 끝에 2011년 1월에는 공직 생활 약 10년 만에 공산당 중앙집행위원³⁹⁾에 선출됐다. 베트남 공산당 정치국원, 중앙 감찰위원장 등을 역임한 응웬 반 찌(Nguyễn Văn Chi)의 아들 응웬 쑤언 아인(Nguyễn Xuân Anh)도 타인 니엔(Thanh niên)신문사에 입사한 후 약 10년 만에 공산당 중앙집행위원에 선출됐다.

최근에는 고위 관료들의 자녀들이 미국, 영국, 스위스 등 서방 선진국에서 유학하고 돌아와 관료가 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또한 승진의 속도도 더 빨라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표적 사례로 응웬 떤 중 현 정치국원 겸 총리의 큰 아들 응웬 타인 응이는 미국 조지워싱턴대(George Washington University)에서 유학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2008년 12월에 32세의 나이로 국립 호찌민시 건축대학교 부총장에 임명된 후, 약 2년 만에 공산당 중앙집행위원에 선출됐고, 2011년 11월에는 건설부 차관에 역대 최연소로 임명됐다. 중 총리의 둘째 아들 응웬 민 쩌엣(Nguyễn Minh Triết)도 2009년에 영국 런던대(University of London)에서 유학하고 귀국하자마자 19세에 베트남 공산당 청년단 청년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임명됐고, 2013년 빈딘(Bình Định)성(省) 공산당 청년단 부단장을 거쳐 2014년에는 빈딘성 중앙집행위원에 임명됐다. 중 총리의 딸 응웬 타인 프엉(Nguyễn Thanh Phương) 역시 2007년 스위스 제네바대(International University in Geneva)에서 유학하고 귀국하자마자 27세에 ‘비엠헤피탈증권(Viet Capital Securities)’과 ‘비엠헤셋매니지먼트(Viet Capital Asset Management)’ 등 금융기관의 최고경영자 및 대표에 임명됐고, 2012년 2월에는 베트남캐피탈은행(Viet Capital Bank)의 은행장에 임명됐다. 또 휘르어 현 정치국원 겸 공산당 중앙조직위원장자의 딸 또린호영 역시 영국 버밍엄대(University of Birmingham)에서 유학하고 귀국하자마자 2012년 4월에 24살의 나이로 베트남 최대 건설사이자 국영 건설사인 비나코넥스의 회장에 임명됐고, 응웬 바 타인(Nguyễn Bá Thanh) 전 정치국원 겸 다낭시 공산당 서기장의 아들 응웬 바 까인(Nguyễn Bá Cánh) 또한 영국 유학에서 돌아오자마자 2011년 12월에 28세의 나이로 다낭시 공산당 청년단 부단장에 임명됐고, 그 후 약 1년 만인 2013년 2월에 단장을 거쳐 2014년 8월에는 다낭시 공산당 집행위원에 임명됐다. 레 타인 하이 현 정치국원 겸 호찌민시 공산당 서기장의 아들 레 쑤잉 하이 히에우도 미국 유학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2008년에 27세 나이로 호찌민시 1군(郡)⁴⁰⁾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됐다. 그

39) 중앙집행위원회는 공산당전당대회에서 선출되며, 전당대회 기간 동안 전당대회 결정사항을 집행하고, 세부적인 업무지침을 작성해 당의 모든 활동을 지도한다. 현재 175명의 중앙집행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40) 베트남에서 행정구역 상 군(郡)은 한국의 구(區)에 해당하며, 군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구청장에 해당한다.

후 호찌민시 시의원을 거쳐 33세에 호찌민시 12군(郡) 공산당 부서기장으로 승진했다.

전술한 내용을 볼 때 오늘날 베트남 관료사회에는 고위직에서부터 하위직에 이르기까지 관료들의 친인척이 공직을 대물림 하는 것이 관행화돼 있는 것으로 보이며, 하위직의 경우에는 대물림 이외에도 돈으로 관직을 거래하는 매관매직 행위까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오늘날 베트남 관료사회에 관료들의 친인척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권력의 족벌체제가 구축돼 있음을 의미한다.

IV. 베트남 관료부패의 원인

1. 선물문화

베트남 관료부패의 주원인 중 하나는 관습으로 뿌리내려져 있는 선물문화가 뇌물문화 또는 커미션 문화로 변질됐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예로부터 베트남인들은 대인관계에서 법보다는 풍속을, 이지적인 것보다는 정감을 우선시 했다. ‘겉으로는 이치, 속으로는 정(情)’이라는 속담은 법과 이치는 겉포장에 지나지 않고,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힘은 속에 있는 정감에 있다는 베트남인들의 전통 관념을 반영하고 있다. 이 때문에 베트남인들은 예로부터 노소, 직업, 장소를 불문하고 정감을 표현하는 선물 주고받기를 좋아하는데, 특히, 고대 베트남에서는 직급이 높은 사람들은 마을 각 가정의 결혼이나 장례 때 해당 가정으로부터 선물을 받았고, 이를 큰 자부심으로 느꼈다. 또한 세력가들은 주민들이 자신의 집을 방문해 선물하는 것을 존중과 존경의 표시로 여기고, 이를 자랑스러워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기관이나 조직체의 수장(首長)은 기념일 등에 직원들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직원들이 자신의 집을 방문하는 것에 자부심을 갖는다. 한편, 베트남인들이 세력가들에게 선물을 하거나, 집을 방문하는 것은 세력가에 대한 존중과 존경의 표시 이외에 청탁을 위한 것이기도 했다. 큰일이 있을 때 지역 세력가들에게 선물로 존중과 존경을 표시하고, 그 해결을 부탁하는 것은 오랜 농경문화의 마을 공동체 생활에서 비롯된 관습으로 자리 잡았다(부썬 투이, 2002: 226-227). 이 때문에 오늘날에도 관료들에게 선물을 하거나 관료의 집을 방문해 문제 해결을 부탁하는 것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들 모두에게 자연스런 일로 여겨지고 있다.

한편, 베트남 공동지원개발연구지원센터(Center for community Support Development Studies) 센터장 당 응옥 진(Đặng Ngọc Dinh) 박사는 “베트남에서는 예로부터 주종(主從)이나 우열(優劣) 관계에 있어서 사적으로나 공적으로나 아랫사람 또는 하부기관이 윗사람 또는 상부기관에 선물을 바침으로써 예와 존경을 표시하는 풍속이 있었다.”며 “그 선물이 한줌의 찹쌀밥, 몇 개의 바나나일지라도 그것을 받는 사람은 큰 자부심을 가졌다.”고 말한

다. 또한 “지인들과 직장동료들의 가정 대소사를 비롯해 명절을 맞아 지인들과 직장동료들에게 선물하는 것은 베트남인의 오랜 미풍양속이기 때문에 이를 일부 관료들이 뇌물수취의 기회로 삼는다고 해서 법적으로 제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라고 말한다.(2015년 1월 5일, 하노이에서 인터뷰)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관습은 뇌물을 선물이라는 이름으로 자연스럽게 주고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호찌민시 소재 제조업체 관계자는 매년 이해관계가 있는 관료들에게 설, 추석 등 명절은 물론, 집안 대소사 때마다 직접 자택을 방문해 선물과 함께 돈 봉투를 전달하고 있으며(2015년 1월 8일, 호찌민시에서 인터뷰), 동나이(Dồng Nai)성 소재 한국계 제조업체 관계자는 “선물은 돈 봉투를 서로 자연스럽게 주고받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며, “선물을 받은 관료들은 으레 ‘내가 뭐 도와줄게 없느냐?’고 먼저 묻는다.”고 말한다.(2015년 1월 8일, 호찌민시에서 인터뷰) 한편, 세력가에게 청탁과 함께 건넬 선물은 오늘날 커미션(Commission)으로 변질돼, 청탁에 대한 수수료, 사례비 등의 명목으로 베트남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다. KOTRA 호찌민무역관에서는 “베트남에서는 사촌을 취직시켜줘도 보통 한 달 치 월급을 사례로 받는다.”며, 베트남 시장 개척 시 커미션 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특히, “베트남에서는 커미션을 당연히 누려야 하는 권리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를 현지의 관습으로 인지해야한다.”면서 “커미션은 일반적으로 5-10%인데 거래가 성사되기도 전에 요구하는 경우도 자주 있다.”고 말한다.⁴¹⁾ 베트남에서 약 10년간 대기업 전자회사 법인장으로 근무한 성낙길 사장은 ‘커미션은 베트남에서 보편적으로 이해되는 하나의 문화’라고 주장한다. 그는 “이 문화는 거래 금액의 10%를 되돌려주는 것으로 이해된다.”며 “이런 거래 관행이 문화로 정착돼 있는 베트남에서 도덕성을 논하기는 어렵다”고 말한다.(성낙길, 2007: 127)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도 베트남에서 대부분의 거래관계에서 커미션이 일반화돼 있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2014년에 베트남상공회의소가 베트남 내 9,859개 자국기업 및 1491개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에서는 66%가 원활한 사업을 위해 통상 커미션을 줘야한다고 답했다. 또한 베트남 내 1,491개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17%가 베트남에 진출할 때, 31%가 공공조달 사업 수주 시 관료에게 커미션을 줬다고 각각 답했다. 그리고 58%는 이러한 커미션이 실제로 사업에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건설업체 관계자들도 이구동성으로 “각종 인·허가 관련 서류 작업을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단계마다 커미션이 필수이며, 이는 관료사회 내부에서도 관습화된 일이어서 거리낌이 없다.”고 말한다.⁴²⁾

오늘날 베트남 관료들의 뇌물수취 관행은 전통 관념 상 세력가 또는 윗사람이 주민 또는

41) http://www.globalwindow.org/gw/overmarket/GWOMAL020M.html?&BBS_ID=10&MENU_CD=&UPPER_MENU_CD=M10102&MENU_STEP=3&ARTICLE_ID=5029792&ARTICLE_SE=203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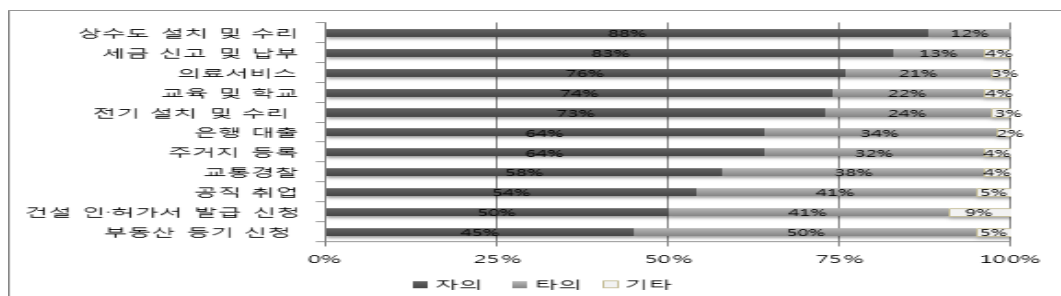
42)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1110811065572640&outlink=1>

아랫사람 등으로부터 존중과 존경의 의미를 담은 선물을 받고, 이를 자랑스럽게 여기던 관습이 오늘날 관료가 민원인으로부터 또는 상급자가 하급자로부터 뇌물을 수취하는 관행으로 변질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세력가에게 선물과 함께 청탁을 하던 관습은 오늘날 관료가 민원인으로부터 청탁을 들어주고, 그 사례로 커미션을 받는 커미션문화로 변질된 것으로 보인다. 결국, 베트남 관료의 뇌물수취는 선물문화를 미풍양속으로 보는 사회적 시각 속에서 베트남 사회 전반에 만연된 것으로 보인다.

2. 자의적 뇌물상납

오늘날 베트남 관료들의 뇌물수취가 만연한 또 다른 원인은 아이러니하게 민원인들이 자의로 먼저 뇌물을 제공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2012년 세계은행, 베트남 검찰원이 공동수행한 베트남 부패에 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베트남 관료의 기업인으로부터 뇌물수취 중 70%가 관료들의 요구에 의한 것이 아닌, 기업인들의 자의적 상납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⁴³⁾

〈그림3〉 분야별 관료 대상 민원인의 자의적 또는 타의적 뇌물상납 비중
(지난 12개월 동안 본인이 직접 행했던 뇌물상납 행위 중)



[출처: Ngan hang the gioi, 2012: 53]

분야별 관료 대상 민원인의 자의적 또는 타의적 뇌물상납 비중에 대한 조사 <그림3>에 따르면 총 11개 분야 중 민원인이 자의로 뇌물을 관료에게 상납한 경우가 10개 분야로, 관료의 요구에 의해 타의로 상납한 경우 1개 분야보다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인의 관료에 대한 자의적 뇌물상납의 비중이 큰 분야는 상수도 설치 및 수리(88%), 세금 신고 및 납부(83%), 의료서비스(76%), 교육 및 학교(74%), 전기 설치 및 수리(73%), 은행 대출(64%), 주거지 등록(64%), 교통경찰(58%), 공직 취업(54%), 건설 인·허가서 발급 신청(50%), 부동산 등기 신청(45%)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볼 때, 오늘날 베트남 관료들의 뇌

43) <http://www.baomoi.com/70-vu-hoi-lo-o-Viet-Nam-do-doanh-nghiep-chu-dong/c/12363808.epi>

물수뢰는 관료들의 뇌물 요구에 의해서가 아닌, 민원인들의 자의적 상납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오늘날 베트남 국민들로부터 가장 부패한 관료로 인식돼 있는 교통 경찰관들 중에는 뇌물수뢰에 대한 근본 원인을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정당한 처벌을 받지 않고, 이를 뇌물로 무마하려는 시민의식’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 이들은 교통경찰관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 법 집행을 하려고 해도 시민들이 먼저 뇌물을 내밀기 때문에 그 유혹을 뿌리치기 어렵고, 결국, 습관적으로 받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한다. (김현재, 2008: 13)

한편, 민원인들이 자의로 관료들에게 뇌물을 상납하는 원인에 대한 2012년 세계은행, 베트남 검찰원의 공동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원인들은 “남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41%)”, “도움을 주는 사람에 대한 당연한 사례이기 때문에(38%)”, “복잡한 행정절차를 피하기 위해서(32%)”, “뇌물상납하지 않으면 업무를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17%)”순으로 답했다. 이를 볼 때, 오늘날 베트남인들은 민원업무를 볼 때, 해당 업무 담당 관료들에게 뇌물을 상납하는 것을 관행으로 여기고 있으며, 뇌물상납이 복잡한 행정절차를 피하고, 민원업무를 처리하는데 효력을 발휘한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민원인들이 오랜 기간 동안 관료들과 접촉하면서 민원업무를 보는 과정에서 스스로 체득한 오랜 경험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3. 낮은 급여

관료의 지나치게 낮은 수준의 급여도 베트남 관료의 뇌물수뢰를 조장해 온 주원인들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이는 이미 2009년에 베트남의 호찌민시 연구개발원이 호찌민시 소속 총 14개 기관에서 근무하는 관료들 중 20-35세 연령층의 관료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90%이상이 공식적 급여로는 생활이 안 된다고 답한 데서 드러났다. 더욱이 약 20%는 급여 수준이 너무 낮기 때문에 저축과 결혼은 꿈조차 꾸지 못하며, 가족의 도움으로 생활하고 있다고 답했고, 주택 소유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약 50%가 소유하지 못하고 부모 등 가족들과 동거하고 있다고 답했다.⁴⁴⁾

〈표1〉 베트남 국내 업종별 종사자 월 평균 수입

단위: 천동

연도 직종	2005	2010	2011	2012	2013
전체 평균	1639.5	3259.5	3775.2	4465.6	5139.0
농림수산업	1130.4	3125.2	4165.7	5199.0	5338.8

44)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2619004>

자원개발	3504.0	4453.2	4852.8	5532.9	6586.0
제조	1777.4	3280.0	3955.6	4472.3	5092.0
전기, 가스, 냉난방	2620.3	5551.4	5934.5	5575.3	6016.1
상하수도, 쓰레기	1475.0	3794.4	4095.2	3957.1	4608.8
건설	1566.9	3122.5	3669.0	4624.1	6123.7
자동차, 오토바이 수리 및 판매	1836.0	3357.0	4397.7	5043.9	5536.7
운송, 창고	2973.8	4296.4	5036.2	5693.3	6474.8
숙박 및 요식	1852.5	3387.4	3847.3	5205.5	4967.6
정보통신	3688.7	5104.5	5342.2	5644.3	5917.7
은행, 금융, 보험	3352.9	6380.6	6573.2	6853.7	7153.9
부동산	2280.2	4365.8	4601.3	6761.9	6482.7
과학 기술	2582.0	3542.7	4333.3	5521.3	6177.3
행정, 지원 서비스	2170.5	3344.6	3583.7	4321.4	5114.6
당-정치-사회-정부-국방-치안	1019.5	2536.1	2963.0	3880.3	4644.8
교육훈련	1337.0	2980.0	3426.4	4263.0	5019.4
의료-사회사업	1322.1	3104.6	3628.4	4490.6	5059.9
예술-예능	1254.7	2946.5	3444.4	4343.8	4555.4

[출처: Niên giám thống kê, 2013: 758]

<표1>에 따르면 당-정치-사회-정부-국방-치안, 교육훈련, 의료-사회사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관료들의 월 평균 수입은 2005년부터 2013년까지 베트남 국내 업종별 종사자의 월 평균 수입 중 최하위권에 속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당-정치-사회-정부-국방-치안 업무 담당 관료는 2005년부터 2012년까지 베트남 업종별 종사자 중에서 월 평균 수입이 최하위인 동시에 관료들 중에서도 최하위로 나타났다. 교육훈련, 의료-사회사업 업무 담당 관료들 역시, 2005년부터 2013년까지 각각 하위 2-5위, 3-6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관료들이 생계의 어려움에 봉착해 있음을 의미한다. 호찌민시 소속 30대 후반의 한 남성 관료는 “현재 베트남 관료들의 급여로는 치솟는 물가를 따라잡을 수 없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민원인들이 내미는 봉투를 뿌리치기는 어렵다”고 토로한다.(2015년 11월 4일 호찌민시에서 인터뷰) 국립 비엠티(Việt-Đức)병원 원장 응웬 띠엔 꾸엣(Nguyễn Tiến Quyết)도 “급여가 너무 적기 때문에 의료인으로서 사명감도 어려운 경제적 현실 앞에서는 무기력할 수밖에 없다.”며 “현 수준의 급여를 받는 상황에서는 봉투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의료계의 현실 앞에서 보건부 장관 응웬 티 킴 뚜옌(Nguyễn Thị Kim Tuyền)은 “의료인이 환자를 치료하기 전 또는 치료하는 도중에는 봉투, 선물 등을 받는 것을 금지하지만, 치료가 끝난 후에는 봉투, 선물 등을 받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고 공식 발표하기에 이르렀다.⁴⁵⁾ 2012년 말에 베트남정부와 세계은행이 10개 지방 자치 단체 및 5

45) <http://baodatviet.vn/chinh-tri-xa-hoi/tin-tuc-thoi-su/giam-doc-benh-vien-noi-thang-luong-thap-la-tham-nhung-3002035/>

개 부처 소속 관료 약 2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관료의 소득’에 관한 조사 결과에서는 79%가 급여 이외에 부수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중 11%는 부수입의 수준이 “급여의 절반 이상이거나 급여와 동등”하고, 2%는 “부수입이 급여를 상회한다.”고 답했다.⁴⁶⁾ 특히, 부수입이 있는 관료들 중 44%는 자신의 부수입에 민원인들로부터 받는 사례비가 포함되었다고 답했다.⁴⁷⁾

와세다대학교 요시하루 츠보이(Yoshiharu Tsuboi)교수는 베트남 관료의 급여가 낮은 원인을 베트남 정부의 재정 마련이 주로 외국 원조에 의지하고 있고, 조세 수입은 매우 낮은 국가재정 마련에 있어서 구조적 한계에 있다고 봤다. 그 결과, 정부가 예산 부족 상황에서 관료들의 급여를 낮게 책정하고 있고, 그로 인해 관료들은 생계의 어려움 속에서 뇌물수뢰를 하게 된다고 분석했다.(Yoshiharu Tsuboi, 2005: 7) 가난한 관료가 맡은 바 공익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 이유는 관료들의 욕구와 보수의 심각한 괴리 현상이 바로 부패의 소지를 만들고, 생계비에 미달하는 보수 구조는 부패의 원인이기 때문이다.(김영중, 1996: 17) 따라서 오늘날 베트남 관료의 뇌물수뢰 관행은 낮은 급여로 인한 생계형 부패라 할 수 있다.

이를 감지한 베트남 공산당과 정부는 관료들의 낮은 급여와 뇌물수뢰 간 상호 연관성을 이미 1990년대 초⁴⁸⁾부터 꾸준히 제기해 왔고, 2012년 5월에는 민원 처리 과정에서 뇌물수뢰 등 각종 비리를 차단하고자 민원 업무 담당 관료들에게 하루 10만 동의 별도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그러나 오늘날 관료들의 급여 수준은 여전히 약 25년 전 1990년대 초반처럼 베트남 국내 업종별 종사자 월 평균 수입 중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이처럼 생계비에 미달하는 관료의 낮은 보수 구조는 지난 오랜 시간동안 관료들의 생계형 뇌물수뢰를 조장하는 환경으로 꾸준히 방치, 지속돼 왔고, 그 결과, 관료들의 뇌물수뢰는 베트남 사회에서 관행으로서 뿌리내리게 됐다.

최근에는 관료의 뇌물수뢰가 생계형 부패가 아닌 치부형 부패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미 2007년公安부가 뇌물수뢰 등 부패행위로 적발한 관료들 중 86.4%의 가정경제 수준은 베트남 전체 가정의 평균 경제수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패행위의 동기도 부의 축적, 유흥비 마련 등이 무려 약 80% 이상인데 반해, 생계문제 해결은 약 20%에 불과했다. 이는 오랜 기간 지속, 만연된 관료들의 뇌물수뢰가 이미 관료들의 생계 상 어려움을 벗어나게 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오늘날 관료들의 뇌물수뢰가 생계형 부패에서 치부형 부패로 변모함으

46) <http://www.tienphong.vn/xa-hoi/79-can-bo-cong-chuc-co-thu-nhap-ngoai-luong-621304.tpo>

47) <http://vnexpress.net/tin-tuc/thoi-su/44-cong-chuc-co-thu-nhap-tu-tien-boi-duong-hop-2654278.html>

48) 1990년대 초반 베트남 교통경찰관에게 지급됐던 월 급여는 약 7만동으로 미화 약 6.8달러에 불과했고, 군장교의 월 급여는 약 30만동, 미화 약 30달러였다. 일반 관료의 월 급여는 미화 약 10달러인데, 당시 컬러 TV 1대의 가격은 미화 약 240달러였으므로 부업이 없이는 생활조차 할 수 없는 급여 수준이었다.(김호섭, 1996: 393)

로써 베트남 사회에서 구조적으로 체제내화 됐음을 의미한다.

4. 솜방망이 처벌

베트남 관료부패의 또 다른 주원인은 솜방망이 처벌이다. 예로부터 베트남의 각 왕조는 왕족, 관료 등이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금전으로 면죄 받게 하는 규정을 유지해 왔고, 이러한 특혜는 베트남의 귀족, 관료 등 지배계층이 법률을 경시하게 했다. 특히, 백성의 재산을 침탈하는 등의 부패행위에 대한 처벌에 있어서도 왕족, 관료, 국가 유공자 등은 금전으로 보상하거나 면죄의 특혜를 받는 등 지배계층의 권력 행사는 법률 이상의 권위를 가졌다.⁴⁹⁾ (김호섭, 2000: 68) 이러한 전통은 근현대사에 들어서 공산당이 입법, 사법, 행정을 비롯해 언론, 여론 등 모든 부문을 통제하는 정치체제 속에서 관료들의 비리를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공개재판을 받게 하기보다는 내부 조사를 통해 처리하고, 우산체제(umbrella system)에 속한 부패관료들은 쉽게 사면하는 행태⁵⁰⁾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2012년 세계은행과 베트남정부가 공동 수행한 ‘베트남 국민이 인식하고 있는 부패 행위’에 대한 조사에서 일반인 2,601명, 기업인 1,058명, 관료 1,801명 등 총 5,460명의 조사 대상자들 중 각각 90%, 91.2% 88.7%가 ‘엄격한 제재가 없음’을 부패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Ngân hàng thế giới, 2012: 68) 특히, 독직(瀆職)이나 공금 횡령 등으로 구속 기소된 관료들 중 고위 관료들의 상당수는 국가에 대한 봉사와 헌신 등의 읍소 전략으로 가벼운 처벌⁵¹⁾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현실은 일부 지도자들의 발언을 통해서 알 수 있다. 타이빈(Thái Bình)성 국회의원 팜 쉐언 트영(Phạm Xuân Thường)은 2013년 11월 21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최근 일부 지방에서는 부패혐의로 기소된 9명의 관료들 중 8명

49) 베트남 역사상 법 체제(legal system)란 제도적으로 별다른 의미가 없었다. 관리들이 황제의 권위를 강요하는 형태로 나라를 지배했고, 전시(戰時)에는 공산당이 행정지침의 발효를 통해 나라를 지배했다. 그 결과, 전통적으로 정부 관리들은 법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전통적인 우산체제(umbrella system)가 이들과 하여금 법을 무시하도록 조장했기 때문이다.

50) 우산체제 내에서 정치적 연계를 지닌 당 관료들의 비행을 고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불합리한 전보나 승진 기회의 박탈, 그리고 심지어 무고죄로 인한 체포 등의 정치적 보복을 가함으로써 이의 발생을 근본적으로 봉쇄하는 사례들도 발생했다. 남부 동나이(Đông Nai)에서는 지역에서 토지를 팔고, 국가 예산을 착복한 지방 관료를 고소한 3명의 당원들이 ‘정부를 전복하고 내부 단합을 파괴하려는 의도를 지녔다’는 비판과 함께 당으로부터 추방당했고(김호섭, 1996: 394), 심지어 베트남의 최고 권력자였던 레 카 피에우(Lê Khả Phiêu)도 공산당 서기장 재임 중 강도 높은 부정부패 단속과 함께 정치국원들에 대한 사찰을 지시하나 것이 정적들의 반발을 초래한 것이 결국 서기장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축출된 사유로 알려졌다.(이강우, 2008: 133)

51) 전 공산당 서기장 응웬 반 린(Nguyễn Văn Linh)은 부패척결 운동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가장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법집행의 불공정성을 들었다. 주로 ‘하위직’ 관료들만이 처벌을 받았고, 고위직의 경우는 과감한 처벌은 고사하고 명백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도 재판에 회부조차 되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는 것이다.(김호섭, 1996: 395)

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부패혐의로 기소된 10명 관료들 전원이 경범죄로 처벌된 사례가 있었다.”면서, “판결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와 같은 결과는 관료에 대한 법집행의 형평성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과 정부의 부패척결 의지를 의심받게 한다.”고 주장했다. 디엔 비엔(Điện Biên)성 국회의원 쩌티중(Trần Thị Dung)도 현재 부패혐의로 기소된 관료들의 80-100%는 경범죄 또는 집행유예로 처벌을 받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재판부의 해명을 촉구했다.⁵²⁾ 국회 사법위원회 주임 응웬 반 히엔(Nguyễn Văn Hiến)도 2015년 6월 5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지난 2012년 6월부터 현재까지 부패혐의로 처벌된 관료 총 1,930명⁵³⁾ 중에서 상당수가 집행유예 또는 여타 경미한 죄명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고 보고하고 “오늘날 관료들의 부패행위가 법에 따라 엄중하고 공평하게 처벌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당과 정부의 부패척결 의지에 대한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⁵⁴⁾

전술한 내용을 볼 때, 현재 베트남에서는 부패혐의로 기소된 관료들 중 상당수가 집행유예 및 경범죄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국회에서는 뇌물수취, 국가재산 횡령의 부패사범이 뇌물수취 금액 또는 피해금액의 3/4 이상을 상환하면 사형을 면해주는 형법 개정안을 2015년 11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84%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다.⁵⁵⁾ 현지 언론에서는 이 개정안이 부패사범에게 반성의 기회를 주고 부패·비리 금액을 국가 재정으로 환수하는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거액의 뇌물수취와 국가재산 횡령의 대부분이 국영기업과 관련 유관기관의 관료들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이 개정안은 국영기업과 정부 관료들이 심각한 비리를 저질러도 최악의 처벌을 면해주는 특혜라는 비난 여론에 직면해 있다. 호찌민시 거주 한 직장인은 이 개정안은 “관료는 아무리 뇌물을 받고 국가재산을 횡령해도 사형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당과 정부가 공식 인정한 것”이라며, “이 개정안이 앞으로 관료부패를 더 부추길 것”으로 전망했다.(2015년 12월 4일, 호찌민시에서 인터뷰) 전술한 바와 같은 당과 정부의 부패관료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관료부패를 조장함은 물론, 베트남 국민들로 하여금 당과 정부의 부패척결에 대한 진정성과 의지를 의심케 하고, 당과 정부에 대한 불신을 확대시킴으로써 공산당 일당의 사회주의 체제 존속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52) <http://vietnamnet.vn/vn/chinh-tri/150357/xu-9-nguoi-toi-tham-nhung-thi-8-huong-an-treo.htm>

53) <http://dantri.com.vn/xa-hoi/hinh-phat-con-qua-nhe-voi-toi-tham-nh-ung-1434168073.htm>

54) <http://www.sav.gov.vn/1862-1-ndt/thuc-trang-tham-nhung-lon-thanh-be-nang-thanh-nhe.sav>

55) <http://vnexpress.net/tin-tuc/phap-luat/toi-pham-tham-nhung-thoat-an-tu-neu-tra-lai-tai-san-tham-o-3318895.html>

5. 족벌주의

관료를 선발할 때 혈통을 중시하는 족벌주의는 전통으로서 오늘날 베트남 관료의 공식 대물림을 유발하는 주원인이다. 이에 관해 베트남 공산당의 당 기관지 ‘공산당보(Communist review)’는 오늘날 관료가 되기 위한 최우선 조건이 혈통이라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다며, 이에 대하여 “오래전부터 고위관료의 자제 등을 어린 나이에 중앙과 지방 등 각 기관의 요직에 관료로 앉히고 국가 지도자 수업을 시켜온 전통 때문이다.”라고 설명한다. 또한 “관료를 선발할 때 혈통을 중시하는 것은 베트남의 오랜 전통이므로 공직을 대물림 받은 고위관료의 자제는 관료로서 충분한 자질과 능력을 발휘해 ‘호랑이가 호랑이 새끼를 낳는다.’는 뜻의 속담 ‘호푸신희뜨(hồ phụ sinh hổ tử, 虎父生虎子)’을 몸소 입증해 보여야 한다.”고 주장한다.⁵⁶⁾ 베트남 관료사회는 단결의 본보기로 지칭될 만큼 안정과 지속성을 특징으로 한다. 더글라스 파이크(Douglas Pike)는 “베트남의 리더십은 오랜 유대 속에 조성돼 졌다. 그리고 핵심 관료 그룹 구성원들 간에는 공동의 경험과 공동의 발전 그리고 공동의 충격(衝擊)을 공유하고 있으며, 이 그룹은 1940년대에 긴밀한 법인체와 같이 결성된 후 사실상 한 번도 변동이 없었다.”고 지적한다. 데이비드 엘리엇(David W. P. Elliott)도 “이들 그룹은 상호 혁명 경험을 공유하고 있으며, 외부의 적(敵)에 직면해 단합된 결속을 강화시켰다. 그리고 1960년 이전 31명의 당 중앙위원 등 고위관료들의 투옥 기간을 합하면 222년이나 되는데, 이는 그룹의 단결과 조직의 규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인상 깊게 해주는 중요한 경험들이다.”라고 말한다.(Thai Quang Trung, 1985: 1-2) 한편, 카알라일 테이어(Carlyle Thayer)는 ‘패거리 모델(collegial model)’로 이를 설명한다. 그는 “패거리 체계는 비록 개인 간 또는 파벌 간의 불협화는 용인하지만 최종목표에 대해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며 “베트남 지도부 관료들은 국가 통일과 프랑스, 미국, 중국 등 강적에 대항해 민족의 생존을 지키는 최종 목표를 지속적으로 추구해왔기 때문에 이 같은 족벌체제가 계속 진화적(進化的)으로 지속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봤다.(조재현, 1991: 18- 19)

이러한 오랜 족벌체제 전통을 유지하기 위해 베트남 정부는 행정고시 등의 제도로 관료를 뽑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부정기적으로 소정의 시험을 통해 인원을 충원하고 있다.(김경수, 2008: 71) 채용방법도 공개전형이 아닌 철저한 면접 중심이기 때문에 당, 정부 등에 고위 관료를 친인척으로 둔 응시자의 채용은 확정적이다. 그래서 오늘날 당과 정부를 비롯해 전력공사, 해운공사, 건설공사, 석유공사, 베트남항공, 국영은행, 국립병원, 사회복지기관 등 등 국영기업에서는 족벌체제가 구축돼 있다. 베트남의 한 관료는 “족벌주의가 가장 심한 정부 부처 중 하나가 외교부인데, 실례로 주한 베트남대사관의 전·현직 외교관들은 대부분 전·현직 고위관료의 친인척이고, 심지어 한국에 파견 나온 베트남 연합뉴스 특파원들, 국영

56) http://www.tapchicongsan.org.vn/Home/Sinh-hoat-tu-tuong/20_14/25238/Hau-due-va-tri-tue.aspx

항공사 베트남항공의 직원들조차도 대부분 전·현직 관료의 친인척들”이라고 말한다.(2015년 11월 28일, 서울에서 인터뷰)

이 같은 베트남 관료사회의 오랜 족벌주의 전통은 이미 누구나 알고 있는 공공연한 비밀이지만, 그동안 이를 감히 공개적으로 비난할 수는 있는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최근 인터넷, SNS 등을 통해 관료사회의 족벌주의를 비난하는 여론이 급속히 확산⁵⁷⁾되고 있다. 그리고 이를 감지한 당과 정부 내부에서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하노이 국회의원 쭈썬하(Chu Son Hà)는 “관료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가 혈통, 둘째가 돈, 셋째가 관계, 넷째가 지식’이라는 비난 여론에 대해 당과 정부가 해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고,⁵⁸⁾ 타인화(Thanh Hóa)성 국회의원 레남(Lê Nam)도 “족벌체제를 만드는 관료선발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⁵⁹⁾ 그러나 이들 국회의원 역시 족벌주의로부터 자유롭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이들의 목소리는 베트남 사회에서 공허한 메아리로 치부될 가능성이 크다.

족벌주의는 베트남 관료사회가 개인의 능력, 경력보다 혈통을 최우선시 하는 권력세습을 초래함으로써 사회적으로 관료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키고, 관료사회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당과 정부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키고, 불신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확대될 수 있다. 이를 볼 때, 오늘날 베트남 국민의 관료사회를 비롯한 당과 정부에 대한 신뢰 정도는 매우 낮을 것으로 짐작된다.

6. 번문옥례(繁文縟禮)

복잡한 행정절차에 지나치게 얽매이는 번문옥례도 베트남 관료들의 뇌물수취의 원인이라 할 수 있다. KOTRA의 2014년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의 애로사항 분석’에 따르면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과 외국 기업들이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같은 행정절차라도 각 지방정부마다 다르고, 처리 방법도 담당자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OTRA 하노이무역관에서는 “특히, 복잡하고 경직된 인·허가, 통관 절차 등으로 인해 한국 업체들을 비롯한 대부분 외국 기업들이 애로를 겪고 있다.”며, “실제로 통관 시 실질적으로 화주(貨主)들이 베트남의 관련 규정들을 이행하려면 약 5,700개의 행정 절차와 약 9,000개의 법률 문서를 숙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⁶⁰⁾ 베트남 세관 개혁위원회 위원

57) 베트남은 세계 최악의 언론탄압국 중 하나로 꼽힌다. 반체제적 행동이나 발언으로 징역형에 처해지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인터넷에서 정부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이에 따라서 베트남 정부는 인터넷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정치 비판을 하는 블로거들을 잡아들여 처벌하는 한편, 인터넷에 뉴스를 게재하거나 전달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각종 금지 조항을 만들었다.

58) <http://tuoitre.vn/tin/chinh-tri-xa-hoi/20141118/vao-cong-chuc-hau-due-tien-te-quan-he-tri-tue/673272.html>

59) <http://vnexpress.net/tin-tuc/thoi-su/dai-bieu-de-nghi-loai-bo-viec-sap-xep-can-bo-theo-hau-due-tien-te-3108298.html>

60)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5/11/0200000000AKR20150511054500084.HTML?input=>

응웬 지앙 티엔(Nguyễn Giang Thiên)은 “통관을 위해 500여 개의 라이선스, 확인서, 승인서가 필요한 사례도 있었다.”고 털어놓았다. 수백 개의 서류 중에는 관세청이 아닌 타 부처의 요청에 따른 것도 있는데, 기관 간 업무 공유가 되지 않고 서로 다른 서류 양식을 사용하다 보니 기업들이 필요 이상의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베트남상공회의소의 2012년, 2013년 조사에서는 세관 관료에게 뇌물을 준 기업이 각각 57%, 49%로 나타났다.

복잡한 세금 관련 정책과 법률도 기업들의 경영 활동을 어렵게 하는 요인 중의 하나로 꼽힌다. 2014년 미국국제개발처(USAID)의 발표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기업들의 세금 문제 처리 소요 시간은 연평균 872시간으로 싱가포르 82시간, 말레이시아 133시간, 태국 264시간에 비해 훨씬 긴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8월 베트남상공회의소의 베트남 국내 2,500개 기업체 대상 조사에서도 49%가 납세 절차를 밟는 데 어려움을 호소했고, 70%는 조세 제도를 숙지하기가 어렵다고 답했다.⁶¹⁾ 특히, 기업의 32%가 조세 관료에게 비공식 비용을 지급해야 했다고 밝혔는데, 이 중 40%는 뒷돈을 주지 않았다면 불이익을 받았을 것이라고 답했다. 외국 기업이 사업 허가권을 받는 것도 쉽지 않다. 실례로 롯데마트의 경우, 투자허가서를 받는 데만 무려 1년이 넘게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한 지방 관료가 대만 기업인에게 투자허가서 조기 발급을 대가로 미화 1만 5천 달러를 요구한 사실이 드러나 직무정지 처벌을 받았다.⁶²⁾

2012년 세계은행과 베트남정부의 ‘베트남 부정부패 현황 조사’에서는 조사대상 기업인 총 1,058명중 50%가 민원 해결 요청 시 관계 기관 담당 관료가 금품 제공을 요구한 사실이 있다고 답했다. 관료들이 금품 제공을 요구하는 행동에 대해서 기업인의 63%는 “이유 없이 민원 해결을 지연시킨다.”, 58%는 “기업의 허물을 찾아낸다.”, 48%는 “규정과 다른 요구사항을 제시한다.”, 28%는 “불명확한 규정들을 기업에 불리하게 적용한다.”, 25%는 “제도적 불이익을 강조한다.” 등으로 답했다. 2014년 7월 베트남 상공회의소 부회장 ‘황반중(Hoàng Văn Dũng)’은 “관료들은 온갖 행정 서류에 천착하고 있으며, 기업이나 시민들이 제출하는 서류에서 사소한 오류를 찾아 처벌하기 바쁘다.”며, “하다못해 서류가 흐릿하거나 오타가 났다는 이유로 기업에 벌금을 부과하는 게 현실이며, 갈수록 새로운 규제와 규정이 끊임없이 늘어나다보니 오히려 10년 전보다 행정절차를 준수하기가 어렵다.”고 비판한 바 있다. (Ngân hàng thế giới, 2012: 39) 전술한 바와 같이 행정상의 번문옥례는 관료가 관련 제도와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 적용할 수 있게 하고, 관료가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남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민원인들의 행정 사무를 지연시키고, 행정 비용 또한 증대시킴으로써 오

1195m

61)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8/12/0200000000AKR20150812096900084.HTML?input=1195m>62)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1/16/0200000000AKR20151116078900084.HTML?input=1195m>

늘날 관료들의 민원인들로부터 뇌물수뢰를 조장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V. 결 론

오늘날 베트남 관료의 대표적 부패행위인 뇌물수뢰는 암세포처럼 중앙과 지방의 공공기관, 국영기업, 병원, 학교, 심지어 사법기관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지역과 장소에서 관행으로 뿌리내려져 있다. 베트남 관료들 상당수는 일반인들이 각종 인·허가서 발급, 주거지 등록, 출생신고 등의 일반 행정서비스와 전기, 상수도 등의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때를 비롯해 은행 대출, 세금 신고·납부 등을 할 때에도 뇌물을 수뢰하며, 국내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들이 기업 등록, 수출입 통관, 공공 발주 사업 참여, 세금 납부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도 뇌물을 수뢰하고 있다. 관료들의 뇌물수뢰가 일상화, 보편화됨에 따라 베트남 청년들도 민원업무 시 관료들의 뇌물수뢰를 관행으로 여기고, 이에 자연스럽게 응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 이를 오히려 긍정적 수단으로 여기는 부패 친화적 성향을 보이고 있다.

관료들이 친인척에게 공직을 대물림하는 것도 베트남사회에서는 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정도로 만연됐고 관행화됐다. 공직의 대물림은 베트남사회의 오랜 족벌주의 전통과 오랫동안 권력이 당과 정부 관료들에게 집중돼 온 결과이다. 오늘날 상당수의 전·현직 고위관료들은 친인척을 당과 정부 등의 요직에 낙하산 인사 조치하고, 고속 승진시키며, 권력을 세습하는 족벌체제를 유지해 나가고 있다. 하위직 관료들의 상당수는 공직 대물림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관료로 채용해주는 매관매직 행위까지 저지르고 있다.

베트남 관료들의 뇌물수뢰와 공직의 대물림 등 부패행위의 주원인은 크게 환경적 측면과 행정체제의 구조적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환경적 측면에서는 선물문화, 자의적 뇌물상납을 **그**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베트남에서는 예로부터 세력가 또는 상급자가 민원인 또는 하급자로부터 청탁과 보은의 의미를 담은 선물을 받고 자랑스러워하는 관습이 있는데, 오늘날에는 이를 미풍양속으로 보는 사회적 통념 속에서 관료 또는 고위관료가 민원인 또는 하위관료의 청탁을 들어주고, 그 대가로 선물이라는 이름의 뇌물, 커미션을 받는 것이 관행으로 변질됐다. 뿐만 아니라, 민원인의 자발적 뇌물상납 행위도 관료들의 뇌물수뢰를 조장하고 있다. 민원인들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또는 복잡한 절차의 민원 업무를 보다 신속히 처리하기위해 관료들에게 자발적으로 뇌물을 제공하는 것이 관행화됨으로써 관료들의 뇌물수뢰를 조장하고 있다.

한편, 행정체제의 구조적 측면에서는 낮은 급여, 솜방망이 처벌, 족벌주의, 번문욕례가 관료부패의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우선, 낮은 급여는 생계형 부패로서 그동안 관료들의 뇌물수뢰를 조장하는 한편, 관료들로 하여금 뇌물수뢰를 정당화하는 구실을 제공해왔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관료들의 급여 수준은 1990년대 초반부터 현재까지 약 25년 간 베트남 국내 각 업종별 종사자들의 급여 수준 대비 최하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그 결과, 오늘날 관료의 뇌물수취는 관행이 됐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생계형 부패가 아닌 치부형 부패 양상을 보일 정도로 베트남 사회에서 체제내화 됐다. 또한 당과 정부는 부패관료들의 비리를 비공개적으로 철저히 내부 조사 처리하고, 우산 체제에 속한 부패 관료들은 사면하거나, 집행유예, 경범죄 등으로 숨방망이 처벌하는 행태를 보임으로써 관료부패를 조장함은 물론, 국민들로 하여금 당과 정부의 부패척결에 대한 진정성과 의지에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다.

죽벌주의는 예로부터 베트남에서 관료를 선발할 때 혈통을 중시해온 전통 관념에 기인하는데, ‘호랑이가 호랑이 새끼를 낳는다.’는 속담과 오늘날에도 관료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 혈통을 최우선적으로 꼽는 사회적 인식은 이를 반영한다. 더욱이 오랫동안 사회주의 공산당 일당체제 하에서 당과 정부 관료들이 권력을 독점하고, 그 권력을 친인척에게 세습하는 죽벌체제를 구축해온 베트남에서는 이 같은 전통이 사회적으로 묵인되고 있다. 그 결과, 오늘날 당과 정부 관료들 역시 지배층으로서 기득권인 공직을 친인척에게 대물림하면서 죽벌체제를 유지해 나가고 있다. 죽벌주의는 관료사회 내부에서조차 관료 개인의 능력보다 혈연관계, 출신성분 등을 더 중시하는 정실주의를 뿌리내리게 하고, 우산체제를 형성시키며, 부패의 조직화, 대형화를 초래함은 물론, 조직 내 비리의 은폐, 조작 또한 초래하기 때문에 베트남 관료부패를 유발하는 가장 핵심적 원인이라 할 수 있다. 끝으로 번문옥례는 민원인들의 행정사무를 지연시키고, 행정비용을 증대시킴으로써 관료들의 민원인들로부터 뇌물수취를 조장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이는 베트남 현지기업은 물론, 외국인투자기업들로부터도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손꼽히고 있다.

전술한 관료부패의 실태와 원인들을 종합해 볼 때, 베트남 관료부패는 일반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사회주의, 관료주의 병리현상을 거의 망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폐쇄적, 독재적 사회주의 체제와 권위적, 비능률적, 형식적 관료주의 체제에 기인한 정실주의, 특권주의, 비밀주의, 번문옥례 등 관료들의 병리적 행태를 비롯해 일당체제, 죽벌체제 등과 같은 공산당과 정부 조직의 구조적 특징으로 인해 관료부패가 하나의 문화적 유산으로 자리 잡은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베트남 관료부패는 개개의 관료에 대한 비난과 처벌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즉, 이 문제는 전적으로 관료 개인의 도덕적 타락의 산물로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 거대한 관료 조직, 더 나아가서 동 시대를 살고 있는 전체 사회구성원, 그를 둘러싼 법·제도적 사회 환경 등이 상호작용을 한 결과의 산물로 봐야 한다. 그러므로 오늘날 베트남 관료부패는 베트남 관료 개인은 물론, 관료 조직 전체와 베트남 전체 사회구성원의 도덕적 타락이 초래한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관료부패를 둘러싼 법·제도적 사회 환경이 미비하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총체적 문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 환경에서는 청렴의지를 갖고 관료사회에 입문한 관료들도 제도화된 부패로 인해 부패관료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베트남 관료부패 척결을 위해서는 관료 개

인의 윤리적 노력과 더불어 관료부패를 조장하는 사회 환경을 개선하는 노력이 범사회적으로 전개돼야 한다. 특히, 오늘날 베트남 관료부패의 핵심 원인인 관료사회의 족벌주의가 최우선적으로 척결돼야 한다. 그리하여 베트남사회가 족벌주의 관료사회에서 능력주의(meritocracy)사회로 전환돼야 한다. 선대(先代)로부터 물려받은 공직이 가져다주는 권력과 부(富)를 다시 후대(後代)에 물려주면서 자자손손 권력과 부를 독점하는 관료사회의 족벌주의와 그로 인한 정실주의, 우산체제 등의 병폐가 척결되지 않는 한, 반(反)부패를 외치는 정치리더들의 목소리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관료부패 척결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첫째, 오늘날 베트남에서는 정책 결정의 주도권을 장악한 권력의 주체, 즉, 고위관료가 부패의 원인 제공자인 동시에 반부패의 주체이기 때문이다. 즉, 윗물이 맑지 못하므로 아랫물이 맑아지기를 기대할 수 없다. 둘째, 현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함은 물론, 이를 더욱 공고히 해나가야 하는 현 지도부가 관료부패 척결을 위해 오랜 기간 검증된 충성스런 공산당원들의 혈족으로 구성된 족벌체제를 스스로 척결하고, 능력주의 인사제도를 도입하고, 나아가서 다당제, 민주화 등을 요구하는 민중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모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오늘날 베트남 관료부패는 현 사회주의 체제 유지를 위협하는 요소임에 틀림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척결이 당과 정부의 지상과제가 됐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관료부패를 척결하는 것 또한 현 사회주의 체제 유지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날 베트남 공산당과 정부는 관료부패에 대한 방관과 관료부패에 대한 척결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당과 정부의 지도자들이 지난 수십 년 간 관료부패 척결을 부르짖으면서도 실제로는 부패관료를 숨방망이 처벌하면서 오히려 관료부패를 더 만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데서 알 수 있다. 결국, 베트남 공산당과 정부는 앞으로도 관료부패에 분노하는 민심을 추스르기 위해서 변함없이 관료부패 척결을 외치고, 각종 부패 단속과 처벌에 관한 통계자료를 제시하고, 사안에 따라 적절한 수위에서 선택적으로 부패관료들을 처벌하는 등의 보여주기 식 전시행정을 지속해 나가는 한편, 실제로는 당과 정부를 이끌어갈 관료사회의 족벌체제와 우산체제를 더욱 공고히 해나갈 것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오늘날 베트남 관료부패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것을 재확인 시켜주는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한편, 장기적으로 볼 때, 베트남 관료부패는 민중의 불만을 지속적으로 증폭시킴으로써 결국, 베트남 공산당을 민중의 심각한 정치 개혁의 요구에 직면케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영중(1996), 『부패학-원인과 대책』, 서울: 송실대학교 출판부.
- 김현재(2008), 베트남의 부패, 그 특징과 원인에 대한 고찰, 『한국부패학회보』, 13(2): 1-33.
- 김호섭(1996), 베트남의 사회주의 개혁과 관료부패, 『한국정치학회보』, 30(4): 383-400.
- 김호섭(2000), 베트남의 행정개혁, 『한국행정학회보』, 34(2): 61-78.
- 부썬 투이(2002), 『베트남, 베트남 사람들』, 서울: 대원사.
- 성낙길(2007), 『2010년 베트남에서 돈을 캐라』, 서울: 맛있는 책.
- 알렉산더 우드사이드(2012), 『잃어버린 근대성들』, 서울: 너머북스.
- 이강우(2008), 도이머이 시대 베트남의 부패와 반부패, 『동남아연구』, 17(2): 123-148.
- 조재현(1991), 공산베트남 전당대회와 통치 리더십 변동, 『동남아연구』, 1: 7-35.
- Ngân hàng thế giới. (2012). *Tham Nhũng từ góc nhìn của người dân, doanh nghiệp và cán bộ, công chức, viên chức*. Hà Nội: Chính trị quốc gia.
- Nguyễn Xuân Yêm. (2007). *Phòng chống tham nhũng ở Việt Nam và thế giới*. Hà Nội: Nxb. Công an nhân dân.
- Thai Quang Trung. (1985). *Collective leadership and factionalism*. Singapore: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 Võ Xuân Hân. (2006). Tham lạm, dân chủ, rủi ro, và phát triển. *Bài viết hội thảo hè, Berkeley, CA*.
- Yoshiharu Tsuboi. (2005). Corruption in Vietnam, *Creation of new contemporary Asian studies: working paper No. 20*.
- (기사 및 인터넷 자료)
- 김경수. (2008). 한국에 유학 혼 김일성대 출신 베트남 공무원. 『주간조선』 1993호: 71.
- <http://anninhthudo.vn/phap-luat/bat-ke-chuyen-gia-danh-canhsat-giao-thong-chan-nguoi-di-duong/607507.antd>
- <http://baodatviet.vn/chinh-tri-xa-hoi/tin-tuc-thoi-su/giam-doc-benh-vien-noi-thang-luong-thap-la-tham-nhung-3002035/>
- <http://cand.com.vn/Phap-luat/Phat-hien-xu-ly-cac-doi-tuong-gia-danh-Canh-sat-giao-thong-355871/>
- <http://conganphuyen.vn/tin-da-phuong/2624-gi-danh-cong-an-d-kim-tra-cnhsat-giao-thong.html>
- <http://dantri.com.vn/xa-hoi/hinh-phat-con-qua-nhe-voi-toi-tham-nhung-1434168073.htm>
- <http://hiepsibinhduong.com/Pages/NewsDetail.aspx?id=318&type=45>
- <http://kinhdoanh.vnexpress.net/tin-tuc/doanh-nghiep/wb-cam-cua-cong-ty-my-vi-lien-quan-den-tham-nhung-tai-vn-3176983.html>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2619004>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691225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112&aid=0000019820>
<http://nld.com.vn/phap-luat/gia-dai-uy-can-h-sat-giao-thong-de-lua-dao-20140713213012663.htm>
<http://nld.com.vn/thoi-su-trong-nuoc/ngghi-an-nhan-hoi-lo-von-oda-tu-jtc-bo-cong-an-vao-cuo-c-20140324230618925.htm>
<http://phapluattp.vn/an-ninh-trat-tu/hai-sinh-vien-gia-danh-tong-tien-csgt-531316.html>
<http://soha.vn/xa-hoi/loi-khai-duong-chi-dung-va-vet-xe-pmu-18-20140113010404288.htm>
<http://tuoitre.vn/tin/chinh-tri-xa-hoi/20141118/vao-cong-chuc-hau-due-tien-te-quan-he-tri-tue/673272.html>
<http://vietbao.vn/An-ninh-Phap-luat/Luong-Cao-Khai-linh-an-21-nam-tu-giam/70103710/218/>
<http://vietnamnet.vn/vn/chinh-tri/150357/xu-9-nguoi-toi-tham-nhung-thi-8-huong-an-treo.html>
<http://vnexpress.net/tin-tuc/phap-luat/canh-sat-bung-phe-khong-duoc-tiep-dan-2080416.html>
<http://vnexpress.net/tin-tuc/phap-luat/gia-nha-bao-ghi-hinh-tong-tien-csgt-100-trieu-dong-3229684.html>
<http://vnexpress.net/tin-tuc/phap-luat/noi-dau-ly-hon-cua-la-thi-kim-oanh-2927242.html>
<http://www.thanhnien.com.vn/chinh-tri-xa-hoi/12-benh-nhan-phai-boi-duong-them-cho-can-bo-y-t-e-huyen-551463.html>
<http://vnexpress.net/tin-tuc/phap-luat/toi-pham-tham-nhung-thoat-an-tu-neu-tra-lai-tai-san-tham-o-3318895.html>
<http://vnexpress.net/tin-tuc/thoi-su/44-cong-chuc-co-thu-nhap-tu-tien-boi-duong-hop-2654278.html>
<http://vnexpress.net/tin-tuc/thoi-su/dai-bieu-de-ngghi-loai-bo-viec-sap-xep-can-bo-theo-hau-du-e-tien-te-3108298.html>
<http://weeklytrade.co.kr/news/view.html?section=1&category=136&item=&no=6586>
<http://www.baomoi.com/70-vu-hoi-lo-o-Viet-Nam-do-doanh-nghiep-chu-dong/c/12363808.epi>
http://www.bbc.com/vietnamese/vietnam/2012/04/120420_politburo_daughter_ceo.shtml
http://www.globalwindow.org/gw/overmarket/GWOMAL020M.html?&BBS_ID=10&MENU_CD=&UPPER_MENU_CD=M10102&MENU_STEP=3&ARTICLE_ID=5029792&ARTICLE_SE=20305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88665.html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5576371>
http://www.iuc.or.kr/board/?act=bbs&subAct=view&bid=a0301a&page=1&category=3&order_index=no&order_type=desc&list_style=list&seq=3129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1110811065572640&outlink=1>
<http://www.sav.gov.vn/1862-1-ndt/thuc-trang-tham-nhung-lon-thanh-be-nang-thanh-nhe.sav>
<http://www.tapchiconsan.org.vn/Home/Sinh-hoat-tu-tuong/2014/25238/Hau-due-va-tri-tue.aspx>
<http://www.thanhnien.com.vn/chinh-tri-xa-hoi/tham-nhung-lot-tay-van-pho-bien-551815.html>
<http://www.tienphong.vn/xa-hoi/79-can-bo-cong-chuc-co-thu-nhap-ngoai-luong-621304.tpo>
<http://www.tienphong.vn/xa-hoi/csgt-bung-phe-tho-lo-khong-duoc-ra-duong-616395.tpo>
<http://www.tuoiitre.com.vn/Tianyon/Index.aspx?ArticleID=29528&ChannelID=3>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1/03/23/0200000000AKR20110323136100084.HTML?did=1>

179m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7/20/0200000000AKR20150720034400084.HTML?input=1195m>

투고일자 : 2016. 01. 29

수정일자 : 2016. 03. 29

게재일자 : 2016. 03. 30

<국문초록>

베트남 관료부패의 실태와 원인:

뇌물수뢰와 공직의 대물림을 중심으로

김 현 재

베트남의 당정기관, 사법기관, 권력기관, 금융, 세관, 공기업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관료들의 부패가 만연해 있다. 특히, 관료들의 뇌물수뢰 행위와 공직의 대물림은 오랜 관행으로서 사회 전반에 깊이 뿌리 내려져있다. 공산당 일당 체제의 사회주의 국가 베트남에서 부패의 주인공이 관료들이라면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관료부패는 당과 정부의 공신력을 와해시킴으로써 국가 발전에 크나큰 역기능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베트남 관료부패의 실태를 고찰하기 위해서 오늘날 베트남 관료들의 가장 보편적 부패행위로 알려진 뇌물수뢰와 공직의 대물림, 매관매직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이를 위해서 국내에서 수행된 베트남의 부패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베트남 관료부패의 실태를 뇌물수뢰와 공직의 대물림 등 대표적 두 가지 부패행위로 구분해 관련 사례, 보도자료, 면담 내용 등을 살펴본다. 그리고 관료부패의 원인을 분석, 고찰하고, 마지막으로 베트남 관료부패 척결에 대한 가능성과 그에 대한 후과(後果)를 전망한다.

주제어: 베트남, 관료, 부패, 뇌물, 커미션, 족벌주의

